

2020년도
한중 역사 관련 신진학자 학술회의

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10:00~18:00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일정표

구분	시간	내용
개회사	10:00-10:10	환영사(연구정책실장)
1부 발표	10:10-12:00	<p>사회: 배현준</p> <p><하가점하층문화의 취락, 경제 및 사회형태 연구> 박진호(중국사회과학원)</p> <p><韓國式 靑銅武器의 研究> 허준양(영남대)</p> <p><중서부지역 출토 부여계(夫餘系)와 한식계(漢式系) 유물의 현황과 의미> 박장호(영남대)</p> <p><三燕墓制의 분류와 계통> 이현우(북경대)</p> <p>토론: 이유표, 박선미</p>
오찬	12:00-13:30	오찬
2부 발표	13:30-15:00	<p>사회: 이유표</p> <p><17세기 전반 朝鮮과 後金·淸의 國交 수립 과정 연구> 장정수(고려대)</p> <p><중일전쟁 이전 베이핑 시정부의 관광사업(1928-1937)> 홍영미(북경대)</p> <p><지역문화와 문학의 상호성 : 함락시기(1931-1945) 동북작가 연구> 정겨울(북경대)</p> <p>토론: 이정일, 김정현</p>
휴식	15:00-15:20	휴식 20분
3부 발표	15:20-18:00	<p>사회: 권은주</p> <p><4~6세기 加耶 諸國의 동향과 국제관계> 신가영(연세대)</p> <p><5~6世紀 百濟와 新羅의 ‘軍事協力體制’ 研究> 위가야(성균관대)</p> <p><百濟 姓氏의 歷史的 展開와 大姓八族> 오택현(동국대)</p> <p style="text-align: center;">(16:40-16:50 휴식 10분)</p> <p><高句麗壁畫古墳의 墨書 研究> 김근식(동국대)</p> <p><고구려 도성 연구> 권순홍(성균관대)</p> <p><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연구> 장병진(연세대)</p> <p>토론: 고광의, 이성제</p>

* 일정표의 소속은 학위 취득 대학을 명기하였음(본문의 소속과 상이할 수 있음).

목차

하가점하층문화의 취락, 경제 및 사회형태 연구 (박진호)	1
『韓國式 靑銅武器의 研究』-동북아지역 한국식 청동무기의 위치- (허준양)	7
중서부지역 출토 부여계(夫餘系)와 한식계(漢式系) 유물의 현황과 의미 (박장호)	13
三燕墓制의 분류와 계통 - 오호십육국시대 북방유목민족의 국가 형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 (이현우)	19
17세기 전반 朝鮮과 後金·淸의 國交 수립 과정 연구 (장정수)	25
중일전쟁 이전 베이핑 시정부의 관광사업(1928-1937) (홍영미)	32
지역문화와 문학의 상호성 : 함락시기(1931-1945) 동북작가 연구 (정겨울)	38
4~6세기 加耶 諸國의 동향과 국제관계 (신가영)	43
『5~6世紀 百濟와 新羅의 ‘軍事協力體制’ 研究』 (위가야)	49
百濟 姓氏의 歷史的 展開와 大姓八族 (오택현)	52
高句麗壁畫古墳의 墨書 研究 (김근식)	57
고구려 도성 연구 (권순홍)	64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연구 (장병진)	67

하가점하층문화의 취락, 경제 및 사회형태 연구 (요약문)

박진호(중국사회과학원)

I. 논문의 구성

제1장 머리말

제1절 요서지역의 자연환경

제2절 하가점하층문화 연구 현황

제3절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장 하가점하층문화 취락분포 연구

제1절 개술

제2절 음하(阴河)중하류 및 영금하(英金河) 유역의 취락분포

제3절 반지전하(半支箭河) 및 석백하(锡伯河) 유역의 취락분포

제4절 교래하(教来河) 중류 유역의 취락분포

제5절 대릉하(大凌河) 유역의 취락분포

제6절 맹극하(孟克河) 중류 유역의 취락분포

제7절 류하(柳河) 상류 유역의 취락분포

제8절 소결

제3장 하가점하층문화 취락 유적의 발굴과 연구

제1절 개술

제2절 대전자(大甸子) 유적

제3절 이도정자(二道井子) 유적

제4절 강가둔(康家屯) 유적

제5절 풍하(丰下) 유적

제6절 삼좌점(三座店) 유적

제7절 상기방영자(上机房营子) 유적

제8절 성자산(城子山) 유적

제9절 기타 유적

제10절 소결

제4장 하가점하층문화 경제형태 연구

제1절 농업 경제

제2절 가축 사양업

제3절 수렵채집 경제

제4절 소결

제5장 하가점하층문화 사회형태 연구

제1절 사회조직

제2절 사회관계

제3절 제사와 종교신앙

제4절 소결

제6장 맺음말

제1절 하가점하층문화 취락, 경제 그리고 사회의 발전 수준

제2절 하가점하층문화와 초기국가의 형성

제3절 중국 청동기 문화 체계 속의 하가점하층문화

II. 연구 요지

1. 연구배경

하가점하층문화(夏家店下层文化)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견된 조기(早期) 청동기시대 문화이다. 그 연대는 일반적으로 BC2000~BC140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원지역의 하(夏) 및 조상(早商)시기와 맞물린다. 하가점하층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돌이나 흙벽돌을 사용하여 만든 담장과 산 정상부에 자리 잡은 비교적 큰 규모의 석성이 보편적으로 발견되며, 내몽고 중남부 및 중원 지역에서 유행하던 렉(鬲)과 언(甗) 등의 삼족기가 토기 조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동일 지역에서 발전했던 이전 시기의 신석기시대 문화에서 환호를 두른 취락과 평저의 통형관(筒形罐) 및 기타 평저 토기가 유행하였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중국학계에서도 중원지역의 하상(夏商)문화와 연관지어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지역 청동기시대 형성에 주도적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다.¹⁾ 게다가 요서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존(遺存)들은 요동 지역 및 한반도 지역과도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에, 하가점하층문화 시기에 일어난 문화적 변화들은 국내 학계에서도 주민집단 및 정치체의 이동, 지역 간 문화교류 등의 연구와 관련지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0년 하가점하층문화가 이름 지어진 이래로, 중국 내의 하가점하층문화 연구는 문화의 연대, 분포범위 연구와 더불어, 사회 형태 및 국가기원 등의 문제를 인식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하가점하층문화의 전체 분포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한 두 지역 혹은 두 세 유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된 유적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하가점하층문화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을 단편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발굴 보고서의 부족을 들고 있다. 실제로 현재 고고학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의 수량은 5200여 곳, 발굴이 이루어진 유적은 약 50여 곳인데 반해 정식 발간된 보고서는 4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1) 朱永剛, 「東北青銅文化的發展階段與文化區系」, 『東北與北方青銅時代』, 文物出版社, 2016, 1~20쪽.

단편화된 연구를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자료들을 재분석 하는 한편, 새로운 해석 방법들을 이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하가점 하층문화 유적은 대부분 취락유적인데, 취락에는 사회조직과 구조 등의 기본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본문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하가점하층문화의 취락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발굴이 이루어져 보고서(혹은 약보고서)가 발간된 유적에 대해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전자는 주로 취락의 분포 및 관계에 대한 문제를, 후자는 취락 내부 유구의 배치, 취락의 기능 등에 대한 문제를 포함한다. 취락을 분석한 후에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하가점하층문화의 경제형태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가점하층문화의 사회형태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2. 취락의 분포(거시적 관점에서의 취락 연구)

하가점하층문화의 분포범위는 매우 넓은데 비해, 그 간 많은 학자들의 연구는 내몽고 적봉시 서부의 하천 주변에서 발견된 취락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넓게 분포한 하가점하층문화의 취락들을 포괄하여 언급하지 못하였다.

필자는 이번연구에서 현재 발견된 모든 취락 유적 자료들을 활용한 취락형태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먼저 『중국고고학연감』, 『중국문물지도집』 및 발굴 보고서 및 약보고서 등을 참고해 연산 이북지역에서 발견된 5200여 곳의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을 지역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면적 정보를 결합해, 취락을 아래와 같은 7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등급	내용
제1등급 취락	면적 500,000㎡ 이상인 유적
제2등급 취락	면적 200,000㎡ 이상, 500,000㎡ 미만인 유적
제3등급 취락	면적 100,000㎡ 이상, 200,000㎡ 미만인 유적
제4등급 취락	면적 50,000㎡ 이상, 100,000㎡ 미만인 유적
제5등급 취락	면적 20,000㎡ 이상, 50,000㎡ 미만인 유적
제6등급 취락	면적 10,000㎡ 이상, 20,000㎡ 미만인 유적
제7등급 취락	면적 10,000㎡ 미만인 유적

이후 위의 등급 분류를 바탕으로, 분포지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하가점하층문화 취락 분포의 특징과 취락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① 유적은 기본적으로 하천을 따라 분포한다. 특히 수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하천의 중하류 지역으로 갈수록 유적 수량이 많아지고, 규모 역시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1, 2, 3등급 유적과 7등급 유적이 표시된 유적 분포지도를 보면, 매 하천의 상류지역은 내몽고 적봉지역 남부, 오한기 남부 그리고 요녕성 건평지역에 위치하며, 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7등급 유적이다. 반면에 수자원이 풍부한 하천의 중하류 지역에는 제1, 2, 3등급 취락이 고리형 모양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② 저산구릉 지대와 하곡이 넓게 형성된 노로아호산(努魯儿虎山) 이서지역은 유적 밀도가 높다. 반면에 해발이 비교적 낮고 평원지대가 발달한 이동지역은 유적 분포가 상대적으로 분산적이다.

③ 유적의 등급과 취락 수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즉 유적의 규모가 작은 저 등급 취락의 수량이 많고, 고 등급 취락의 수량은 적다.

④ 각 하류 유역에 자리잡은 취락 유적들은 큰 취락을 중심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 취락 공동체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취락분포에는 일정한 고정 형태가 없으며, 다양한 특징을 나타낸다. 매 하류유역에서 저 등급취락 수량이 많고, 고 등급 취락 수량이 적어 취락공동체를 이루지만, 그 분포 정황은 모두 다르다.

⑤ 등급이 높은 취락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은 대체로 두 지역이다. 한 곳은 적봉 시구(市區)와 오한기 서북부 지역을 포괄하며, 다른 한 곳은 조양시 동북부, 부신시 서부 그리고 고륜기 지역을 포괄한다. 두 지역을 비교하면 서쪽의 적봉-오한기 지역의 유적 밀도가 비교적 높고, 대규모유적 수량 역시 많다. 조양 동북부의 부신서부-고륜기 지역은 유적의 수량이 적고, 그 분포 역시 비교적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등급이 높은 취락들에 대해서는 두 지역에서 모두 완전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지역이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더 우위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취락의 기능(미시적 관점에서의 취락 연구)

현재 중국의 연구자들은 하가점하층문화 취락의 기능에 대해 주로 방어적 기능과, 제사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적봉 서부의 음하 연안을 따라 배치된 석성들이 방어적 기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모든 하가점하층문화 취락이 방어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취락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거주와 생산, 소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층문화취락이 거주구역, 저장구역, 토기제작소, 무덤구역, 제사구역 등의 다양한 기능구역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만약 한 유적 내에 이상의 다양한 기능구역을 갖추고, 여기에 다시 정치중심구역, 청동기 제작소, 방어시설 등의 기능구역이 더해진다면, 해당 유적은 높은 사회 복잡도를 갖춘 고대 도시를 의미할 것이다. 현재의 발굴 정황으로 보아, 하가점하층문화 분포 범위 내에는 아직 이렇게 비교적 높은 사회 복잡도를 갖춘 도시가 발견되지 않았다. 필자는 하가점하층문화 취락 분포와 기능분석을 통해, 하가점하층문화의 소규모 취락들이 밀집해서 분포하는 것이,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다른 등급의 취락들이 모여 하나의 비교적 완전한 도시 체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몇몇 유적을 예로 들어 기초적 분석을 한 것이다.

적봉 상기방영자유적과 서량유적은 매우 근접해 분포한다. 두 유적 모두 유적 외곽

에 석축 담장을 두른 이른바 석성유적이지만, 두 유적은 규모와 유구 형태 등 방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서량유적은 돌담을 두른 주거지 10기, 석축 저장공 2기, 치(마면) 2개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서량유적은 거주기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난 작은 촌락으로 추측할 수 있다. 상기방영자유적은 규모가 서량유적과 비교해 매우 크다. 주로 석성북부의 일부분이 발굴되어, 유적의 완전한 면모를 알기 어렵다. 발굴된 구역 내에서는 돌담을 두른 주거지 혹은 주거 구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4기의 수혈식 주거지와 15기의 저장공, 그리고 1기의 토기 가마가 발견되었다. 토기 가마는 주변의 기타 유적 중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이며, 전체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을 보더라도 발견된 사례가 드물다. 일부 저장공 바닥에서는 탄화된 곡물이 발견되었다.

해당 발굴 구역과 취락 중부 사이에는 두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돌담장이 존재하는데, 상기방영자 유적과 돌담의 규모를 고려하면 석성 내의 중부 혹은 남부에는 주거구역이 존재 했을 것이며, 발굴된 북부 지역은 유적 내에서 토기 생산과 양식 저장을 담당하는 장소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유적은 토기제작소, 저장구역, 거주구역 및 방어 시설을 갖춘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유적의 관계를 살펴보면, 서량유적은 거주구역만 갖추고 있으며, 토기가마나 석기제작소 등의 생산시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시 서량유적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는 주변 기타 유적과 반드시 무역 혹은 교환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비록 상기방영자 유적 내에서 생산된 토기가 분배 혹은 교환되어 서량유적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두 유적의 규모와 유구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유적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상기방영자유적은 비교적 높은 등급의 취락이며, 비교적 낮은 등급의 취락인 서량유적에 토기를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4. 경제형태

하가점하층문화의 생업경제 방식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즉 다양성과 상호보완성이다. 해당문화의 식량자원은 주로 농업과 가축사양업을 통해 얻었으며, 수렵 및 채집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였는데, 이것은 동식물 유존에 대한 형태 분석, 종속분석, 부선분석, 동위원소분석 등의 과학 고고학 방법에서도 증명이 되었다.

주의할 것은 하가점하층문화 시기에 어째서 다양한 경제 생업 방식이 존재하였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하가점하층문화 유적들이 처한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원지역과 비교해서, 요서지역은 위도가 높고 기온이 낮으며 강수량은 적어, 예부터 농업과 유목이 공존하거나, 기후에 따라 번갈아 나타나는 지역이었다. 농업의 주요 형태는 건조농업인데, 만약 농업생산에만 의존한다면 생업경제의 안정성은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하가점하층문화의 사회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농업기술과 가축사양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전통적으로 발달했던 수렵채집의 생업방식을 버리지 않고 자연에 적응하는 합리적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하가점하층문화 생업경제의 상호 보완성은 환경이 갑자기 변화하거나 기타 돌발 상황이

일으키는 식량자원의 부족 상황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사회형태

하가점하층문화를 구성하는 문화 요소 중 일부는 당지의 전통적 인소(통형 토기, 존, 옥기 등)를 계승하였고, 또 다른 부분은 주변 기타지역의 문화 인소(석조건축, 삼족토기, 채회토기 등)를 융합하여 형성되었다.

하가점하층문화 사회의 내부를 살펴보면, 농업 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내부 경쟁이 심화되었다. 등급 분화가 일어났고 지위 고저의 차이가 있는 계층 사회가 되었다. 또한 각 취락은 다른 기능을 가지면서, 취락 간에도 서열의 구분이 생겼다.

무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역이 나뉘었는데, 매 구역의 무덤에 부장된 유물 종류와 수량이 달랐으며, 심지어 남성과 여성의 무덤 간에도 특정한 부장 유물 조합이 있었다. 하가점하층문화 묘지 중에서 발견된 부장품으로는 력(鬲)과 관(罐) 등의 토기와 채회도, 철기, 옥기, 금속기, 골기 등이 있다. 이러한 수장기물은 거주유적 중에서 출토된 것에 비해 특수한 것이며, 대량 출토된 여러 종류의 수장품은 노동 분업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시의 정치 권력자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상술한 하가점하층문화의 주요 문화 인소가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현상임을 고려하면, 당시의 정치 권력자는 비교적 여러 취락 구역을 통제할 수 있었고, 각 구역의 권력자들 간에는 일련의 유대가 존재했을 것이다.

상술한 물질문화의 급격한 변화 이외에, 종교와 제사 방면에서도 요서지역의 전통적인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취락 유적 중에서 비교적 선진적 기술을 채용한 복골이 많이 출토되는데, 이것은 취락 내에서 종교활동 및 점복활동이 성행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전시기 고고학문화인 흥릉와, 흥산문화 시기에 성행했던 조상숭배는 더 이상 성행하지 않게 된다. 오한기 성자산유적으로 대표되는 산 정상부에 위치한 제단유적들은 당시에 제천의식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제천의식은 하가점하층문화의 경제형태 즉, 농업과 가축사양업 위주의 생업경제와 관련이 있다.

『韓國式 靑銅武器의 研究』
-동북아시아 한국식 청동무기의 위치-

허준양(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I. 머리말
- II. 구분마연 청동무기와 동북아시아
- III. 요령식동과와 한국식동과의 계보 문제
- IV. 중세형 청동무기의 국산화
- V. 맺음말-앞으로의 연구 방향

I. 머리말

발표자의 박사학위논문은 한국의 청동기 자료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 청동기문화의 연계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기초작업으로 한국의 청동기를 직접 실견하고, 고유의 특징을 찾아내는데 힘을 쏟았다. 또한 지역별 청동기의 상사·상이성을 검토하여 기왕에 알려지지 않은 발표자만의 견해를 내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 동북·중원지역, 러시아 연해주지역, 일본 북부구주지역 등을 답사하고 관련 고고자료를 조사하여 상호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박사학위논문은 先學의 研究를 기반에 두었지만 일례의 보고도 없던 자료를 포함하고 발표자만의 견해를 축적하여 동북아시아 청동기문화의 병행 검증을 통해 완성한 것이다. 이 과정에 李清圭 선생님의 지도와 李健茂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識見을 넓히는 계기도 있었다.

본 발표는 박사학위논문과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동북아역사재단의 성격과 연관될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II. 구분마연 청동무기와 동북아시아

청동무기의 연구는 일찍이 일본에서 진행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동검은 細形-平形, 동과는 크리스(クリス)형동검(동과), 동모는 狹鋒-廣鋒의 분류가 그것이다(高橋健自 1916, 1925). 세형동검은 평형동검에 반해 명명되었지만 청동무기 형식분류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동과는 초기에 크리스(クリス)형동검으로 분류되기도 하였으며, 동모는 협봉-광봉의 비대해진 크기의 변천에 주지된다. 이러한 분류는 외형에 주목하는 일본의 연구 경향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細形-中細形-中廣形-廣形의

표지적인 변천이 일본에 정립되었다(岩永省三 1980, 1986).

한국에서는 마연 규칙과 시간성이 관찰되는 節帶와 挾入部의 성형 연구가 진행된다. 절대와 결입부는 한국식동검의 특징적인 마연기법인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는 정찬영(1962), 尹武炳(1966), 金英夏(1977, 1978a·b·c, 1983), 金昌鎬(1978), 李健茂(1994, 1995, 2003), 宮井善朗(1998), 青木政幸(2002), 柳田康雄(2005, 2014), 허준양(2013, 2016) 등이 있다. 이중 일본 초기 마연방식은 한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宮井善朗(1998)에 의해 검토된 바 있는데 동검은 사용 가능한 형태로 보유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규제의 기본에 재마연이 진행된 상태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경향의 일환으로 발표자도 청동무기의 마연에는 초기부터 정형화된 기법이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각각의 동검이 각지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허준양 2016). 나아가 李健茂는 한국식동검의 성립 배경(李健茂 1994), 한국식동검의 조립식 구조(李健茂 1995) 등의 연구를 종합하여 한국의 청동기를 ‘韓國式銅劍文化’로 명명하고, 成立期-發展期-衰退期로 분류한 바 있다(李健茂 2003).

이상의 연구사를 기초로 발표자는 청동무기를 직접 실견하던 중 한국에 구분마연 기법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허준양 2013, 2017). 이 구분마연은 기왕에 일본에서 고유의 기법으로 언급되던 고고자료인데 한국에서 확인된 것이다. 구분마연은 청동무기의 능각과 인부에 횡방향의 규칙적인 마연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구분마연 기법은 동검, 동모, 동과에서 관찰되고 한국식, 중국식, 일본식의 청동무기에 표현되어 있다. 공간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국 산서·산둥(山西·山東)지역, 한국 남부지역(북부지역), 러시아 연해주(沿海州) 동남부지역, 일본 북부구주(北部九州)·산음지역(山陰) 등에 분포한다. 구분마연 청동무기는 집단 또는 중심지 간의 교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 출토 사례의 증가는 동북아시아 청동기문화의 일면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마연 기법은 속성에 따라 A~C식으로 분류된다. A식 구분마연 무기의 중심지는 한국 서남부지역이며, C식은 일본 북부구주-산음지역이다. 전자는 한국식 청동무기 I 단계, 후자는 한국식 청동무기 II·III단계를 중심으로 설정된다(허준양 2020). 또한 한국식 청동무기 I 단계는 韓·中·露, 한국식 청동무기 II·III단계는 韓·日에서 전개 및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련의 변천 과정에는 각각을 잇는 교통로가 확인되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中國 山西·山東(中原)↔韓國 西南部(西北部)↔日本 北部九州↔山陰

따라서 한국의 청동무기(한국식동검문화)는 중국 동북지역(요령식동검문화)뿐만 아니라 중원지역(중국식동검문화)과의 관계를 통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고고자료는 동사, 중국식동검 등이 있으며 그중 동사는 중국 동북지역에 출토되지 않고, 중원지역과 한국에 분포하는 점이 구분마연 청동무기의 출토 사례와 흡사하다. 이상

을 종합해 보면, 추후에 한국 청동기문화의 新연구 방향은 중국 산서·산둥(중원)지역의 연계 검토가 필수적일 것이다.

Ⅲ. 요령식동과와 한국식동과의 계보 문제

기왕의 연구에서 한국식동과의 기원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였다. 中國 戰國時代와 병행되는 한국의 자료이기에 戰國戈 또는 燕戈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정도였다. 최근 요령식동과의 출토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郭大順(1995)이 遼西地域 출토 異形銅戈를 소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양가영자, 망강촌, 쌍산자 유적 등에서 요령식동과가 확인된 바 있다(최초 이형동과 외에 요서식동과, 쌍호과, 요령식동과 등으로 불리었다). 또한 건창 동대장자 유적이 정식 발굴조사되어 다수의 요령식동과가 유구에서 출토되었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4a·b;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5). 일련의 자료를 정리하여 중국 요서·요동, 한국 출토의 요령식-한국식동과를 하나의 계보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春成秀爾 2006; 小林靑樹 2008, 2016; 이후석 2015).

이들 연구는 대체로 동과의 난(闕)을 주목하여 계통적인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봉부의 형태, 분리형 등이 공통적일 것이다. 즉 양자의 형태적인 유사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한반도 북부지역의 공간적인 한계성, 미미한 출토 사례 등과 함께 형식분류의 적용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한 자료의 해석은 일률적이고, 일직선상에 배치하려는 연구 경향도 존재한다. 특히 한국식동과를 이들의 마지막에 두는 것도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 평양 토성동 486호묘 출토 동과(윤광수 1994)는 난의 형태 및 문양 유무 등에 따라 쌍산자 유적과 공통되나 봉부의 형태와 내의 크기 등은 이보다 선행하는 망강촌 출토품에 가깝다. 즉 형식분류된 동과의 위치는 양자 사이에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반품을 살펴보면 다뉴조문경 등이 출토된 부여 구봉리 유적의 한국식동과는 세지문경이 출토된 평양 토성동 486호묘의 동과보다 후행하는 점에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부여 구봉리-망강촌-평양 토성동 486호묘-쌍산자 유적의 순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식동과에 관찰되는 연결형은 요령식동과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때문에 요령식동과와 한국식동과의 계보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한국식동과는 요령식동과와 상이한 계보로 출현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각각은 단절(斷絶)된 양상으로 독자적인 성립 및 발전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지역성이 이입된 동과의 출토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충분한 조건의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식동검에서 관찰되는 구분마면 기법이 중국 산둥·산서지역 출토 중국식동검에서 관찰되는 점과 연계하여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북부지역의 단절 및 공백(空白) 등을 해결할 수 있는 新자료의 출토를 기대하는 바이다.

IV. 중세형 청동무기의 국산화

일본 청동무기의 연구는 외형의 분류에 집중되고, 현재에도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변화하는 청동무기의 크기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형식분류에 집중하는 연구 경향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는 무기 외에 제기로 검토되는 청동무기의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되어 한국의 청동무기와는 다양성 면에서 차이가 인정된다. 물론 청동무기의 형식분류는 계통적 연속성이 주요한데 일련의 분류는 한국에서 일본의 전파(도래), 기원 연구 등으로 연계하여 살펴진다(近藤喬一 1969; 岡内三眞 1973, 1982; 千葉基次 1978; 森 貞次郎 1975, 1983, 1986; 後藤 直 1982, 1984; 岡崎敬 1982; 小田富士雄 1985; 小田富士雄·武末純一 1991; 岩永省三 1991, 2000 外). 특히 한국에서 출토된 청동무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가 일본에서 형성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야요이시대를 밝히기 위한 기반 작업으로 이해된다.

韓·日 출토 細形~中細形 靑銅武器의 제작(生産地)에 대한 논의는 일찍이 진행된 바 있다. 일본의 초기 청동무기는 한국에서 전파된 것이며, 일본의 청동무기 중 일정 형식부터는 역으로 한국에 전파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다른 해석과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한국의 청동무기 전파는 福岡市 吉武高木 3號墓가 대표적이며, 彌生時代 전기 후반에 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劍, 鏡, 玉이 공반되어 彌生時代 王墓(首長墓)로 언급되고 있다. 이후 彌生時代 전기 후반에서 중기 전반에 대단위의 군집이 형성되며, 중기 중반에는 공인집단의 출현이 집중된다. 대표적으로 須玖岡本 遺蹟에는 중세·중광형동모 및 주형과 내범 등이 출토된 바 있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물질자료의 전파가 아닌 집단의 이주와 밀접할 것이다. 특히 도래인의 집락으로 福岡市 諸岡 遺蹟, 佐賀縣 土生 遺蹟 등이 언급되는 점은 다방면의 고자료를 종합한 해석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片岡宏二 1999).

이와 더불어 岩永省三(1980, 1991)은 일본에 도래한 청동기의 현지 생산을 주목하였으며, 한국 청동무기의 출현은 '세형에는 순수 전래품, 최초기 방제품의 가능성이 있는 것, 전래방제의 판단이 서지 않는 것'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청동무기의 전파에 따른 것이며, 이후 세형에도 한국과 동일한 방제품이 일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일본의 국산화를 염두한 연구로 보이며 이를 소급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에 한국 청동무기가 유입되고, 舶載-倣製期の 분류·검토가 핵심 주제인 것이다(小田富士雄 1985).

일본에서 한국 청동무기의 출현은 전래품과 방제품으로 구분하는데 그중 후자는 중세형 청동무기의 제작을 고려한 것이다. 즉 일본 청동무기의 형식분류에 따라 중세형 c류의 동검, 중세형a류의 동과·동모가 그것이다(宮本一未·宮井善朗·吉田 広·趙鎮先·田尻義了 2003). 이를 왜계청동기(倭係靑銅器)로 명명하고, 선행하는 선왜계청동기(先倭係靑銅器)까지 소급 적용하고 있다. 또한 有耳Ⅱ式銅矛, 有耳Ⅱ式有文銅矛, 細形Ⅱ式 b2類銅戈 등의 특징적인 양상까지 포함한다. 일본에서 언급하는 한국 출토 왜계청동

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구 신천동·비산동, 경주 입실리, 영천 용전리, 창원 다호리 1호묘의 중세형 동과·동모이다. 이와 더불어 장대화된 왜계청동기인 중세형a류의 동과, 동모와 함께 방제경을 종합하여 검토한 연구도 있다(後藤 直 2009). 그는 한국 최유력자의 묘에 이들의 청동기가 부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韓·倭 간에 상호 관계를 배경에 한국의 철기 생산을 주목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한국에 청동기의 유입은 일본의 전파를 일괄 포함하는데 이는 철기의 자체 제작을 배경에 둔 것이다.

이들 연구는 모두 일본의 입장에서 왜계청동기를 분류·적용한 해석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고고학적 형식분류를 통해 전환기 양상 또는 출토 사례 등을 한국에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출토된 세형~중세형 청동무기의 제작은 여러 고고자료에서 확인된다. 세형의 청동무기는 주형이 대표적인데 여기에 흑철이 관찰되어 사용의 근거는 명확하다(완주 갈동 1호묘 外). 최근에는 원형점토대토기와 함께 송풍관이 확인된 사례도 있어 이들 주형과 병행 시기로 파악된다(전주 안심 2호 주거지).

중세형 청동무기는 동모의 내범 제작기법이 주목된다. 공부 내부에 공통된 흔적은 동일한 기법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세형~중세형동모의 전개는 內范 B·C型の 변천하는 기법이 확인되어 ‘韓國式 靑銅武器’로 명명될 수 있는 것이다(허준양 2020). 또한 중세형동모가 출토된 영천 용전리 유적으로는 탕구 청동제품(갈대기) 등이 공반되어 현지 제작의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탕구 청동제품은 주형의 용탕 과정에 생성되는 잔여물이기 때문이다. 이들과 함께 공반된 중세형동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선행하는 우상문 유문동과의 계보로 볼 수 있어 한반도 동남부지역 출토 세형~중세형동과의 변화 양상과 연동되는 것으로 파악될 것이다. 특히 대구-경산-영천-경주지역에는 중세형 청동무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데 이 일대를 중심으로 거점지를 형성하여 공유되고 유통된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일면으로 해석되는 바이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왜계청동기 연구는 주목할 만 하다. 다만 한국에서 출토된 청동무기, 주조관련 청동제품 등과 함께 청동기 제작기술의 연구는 이들과 병행되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호 간에 동·이질적인 고고자료의 분석과 비교·검토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면밀한 해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연구된 왜계청동기는 한국에서 자체 제작된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앞으로의 연구 방향

동북아지역에는 다종·다양한 청동기가 출토한다. 각각의 청동기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개별 집단의 색깔이 입혀져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생산-분배(교환)-소비의 체계는 각지에서 제작된 제품이 지역 거점을 거쳐 전파(유입)되며, 이를 통해 당시 교통로 및 사회상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 즉 제품의 출처는 지역 집단을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연구 또는 공개 자료는 정치적 성향과 결부되어 지역적 특성을 퇴색

시키고 있다. 소위 말하는 자민족중심주의가 팽배하여 자료의 핵심을 무시한 채 제 입맛에 맞춰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자제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선조의 산물을 무책임하게 남용하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료를 치밀하게 분류·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출토되는 제품을 명료하게 해석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기왕의 자료는 중국, 일본의 입장에서 연구·발표되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반박할 논거의 제시는 한국 연구자의 몫이다. 동북아지역의 청동기 연구는 한국의 고고자료를 기반으로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동일품과 공통된 제작기술의 존재는 제 집단의 생산품으로 분류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호 통합과정 및 전파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韓國式 靑銅武器의 研究』의 博士學位論文을 작성하였으며, 그 기초는 한국의 자료를 직접 실견하고 동북아지역 출토 자료를 대입한 결과이다.

허준양, 2020a, 『韓國式 靑銅武器의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허준양, 2020b, 「韓國 靑銅武器의 型式分類와 研究 動向 -尹武炳 선생님의 1966·72年 論文과 그 以後-」, 『윤무병 선생님 서거 10주년 추모 심포지엄』, 한국청동기학회.

허준양, 2020c, 「구분마연 청동무기와 제작도구」, 『韓國靑銅器學報』27.

중서부지역 출토 부여계(夫餘系)와 한식계(漢式系) 유물의 현황과 의미

박장호(영남대학교)

1. 머리말

중서부지역 목관(곽)묘와 주구목관(곽)묘에는 유개대부호와 원저옹, 철장검, 관부돌출형철모로 대표되는 진·변한계 유물이 주로 부장되고, 새롭게 출현하는 재지계 유물로서 단경호가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유물만이 아니라 소수이기는 하지만 재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유물의 존재도 확인된다.

이 유물은 토기와 함께 철기류와 장신구류 등이 확인되는데, 김포지역을 중심으로는 다량으로 부장되는 경우가 있지만 경기남부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충청내륙지역에서는 소량만이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동남부지역의 진변한계 유물과는 다른 양상이며, 이 유물들을 살펴보면 요녕성과 길림성일대에 있었던 부여와의 관련성이 있는 유물과 서북부지역의 낙랑군과 관련된 유물, 산동지역 등과 같은 漢과 관련된 유물이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중서부지역에서 보이는 외부세력 중 앞에서 살펴본 진·변한계 문화요소를 제외한 다른 문화요소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 문화요소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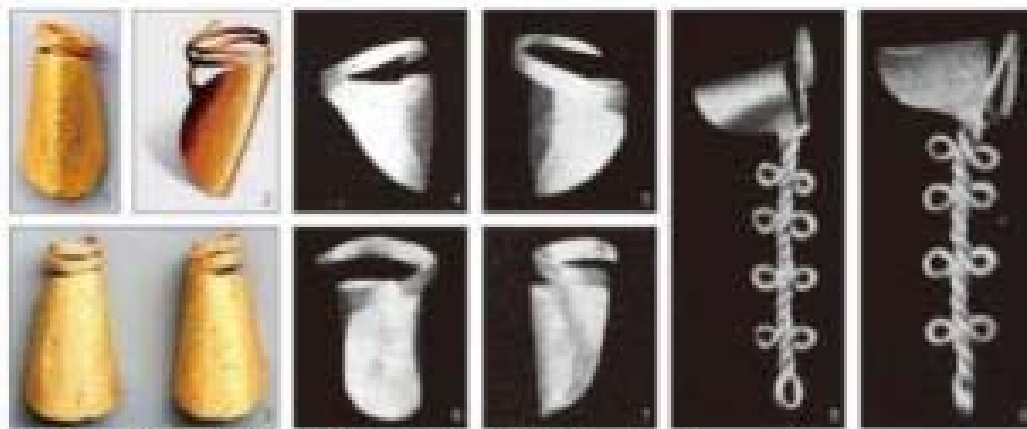
2. 부여계(夫餘系) 유물의 현황

중서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부여계 유물은 청주 오송유적에서 출토된 동병철검과 김포 운양동유적에서 출토된 금제귀걸이가 있다.

김포 운양동유적에서 출토된 금제귀걸이는 총 3점으로 2점은 2-9지점 1호에서 2점, 1-11지점 12호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금제귀걸이는 매장주체부 목관내 단벽쪽에서 경식(구슬류)과 함께 출토되어 피장자가 직접 착장하였던 것으로 보고자는 판단하고 있다(김기옥 2012). 길이 약 3cm로 금판을 사다리꼴로 오려서 위쪽은 나선형으로 감고 아래쪽은 양 끝을 구부려서 만들었는데, 이와 유사한 금제 귀걸이의 형식으로는 중국 길림성의 우수노하심유적과 압록강 중류의 운봉 수물지구 고구려고분이 있다.

금제귀걸이는 형태적으로 보아 부여계 귀걸이로 판단되며, 부여세력과 마한세력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큰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금제귀걸이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며, 삼국시대에 들어가야만 금제귀걸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입품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부여계 유물은 금제귀걸이 뿐 아니라 청주 오송유적에서 출토된 동병철검이 있다. 청주 오송유적의 동병철검은 합주식 동병철검으로 검 손잡이는 이청규의 동병철검 분류에서 A형으로 검파형태는 죽절형이다. 표면에는 원형의 돌기가 검파 전체에서 확인된다. 합주식 동병철검은 청주 오송유적에서 출토되기 전에는 한반도에서는 출토사례



도4. 문양을 아시안-리과 비교자료인 石冢出土鉄子器類, 4~5. 老河深遺跡

도면 1. 김포 운양동유적 출토 금제귀걸이와 비교자료(이한상 2013)

가 없었고 중국동북지역의 길림을 중심으로 요동 동부 일부지역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인 유적은 요령 서풍 서차구(西岔溝)유적과 길림 유수 노하심(老河深)유적이 있다. 출토되는 철장검은 검파두식이 쌍조형이나 원주형이 확인되는데 청주 오송유적에서 출토된 동병철검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길림 유수 노하심유적에서 출토된 원주형 검파두식을 가지는 동병철검이다. 청주 오송유적의 동병철검은 원주형의 검파두식은 확인되지 않지만 검파의 형태나 표면에서 확인되는 돌기가 유수 노하심유적의 동병철검 1점에서 확인되고 있어 유수 노하심(부여)과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다²⁾.

유사한 형태의 동병철검이 길림지역에서 확인되지만 길림지역에서만 합주식 동병철검이 출토되는 것이 아니라 요령 동부지역에서 비슷한 형식의 동병철검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여와 호서마한이 직접적인 교류관계를 형성하였다기보다는 요동 동부지역이나 서북부지역을 통한 간접적인 교류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요령 동부지역에서 유수 노하심유적에서 출토되는 동병철검과 동일한 계통의 동병철검이 확인되고, 평양 토성동유적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동병동검이 출토되기 때문에 요령 동부지역과 서북부지역을 통하여 호서 마한이 북방지역과 교류를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부여계 유물의 존재는 중서부지역의 재지세력이 동남부지역과의 교류관계만이 아니라 중국동북지역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물이 직접적으로 길림지역이나 요동 동부지역에서 중서부지역으로 유입되었다고 보기에 아직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서북부지역을 통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교류양상은 중서부지역에 부여계 유물만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다량의 중원계 유물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직접적인 유입보다는 경유지를 통하여 들어왔을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한다.

2) 많은 연구자들이 길림 유수노하심유적의 연대를 서기전 1세기 전후로 보고 있고, 동병철검이 출토된 청주 오송유적 15지점 17호 토광묘의 연대를 서기 2세기대로 보고 있어 시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은 현재로서는 전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면 2. 청주 오송유적 15지점 17호 토광묘 출토 동병철검 및 공반유물(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한편 성정용은 청주 오송유적의 동병철검과 김포 운양동유적의 금제귀걸이, 청주 봉명동과 충주 금릉동유적의 재갈을 분석하여 우수노하심유적(부여)과의 교류관계를 언급하면서 북방지역과의 교류관계도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다양한 교류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³⁾.

3. 한식계(漢式系) 유물현황

중서부지역의 무덤에서 확인되는 외래계 유물 중 한식계 유물이 주로 출토되는 지역은 김포지역이다. 김포지역은 부여계 금제귀걸이와 진·변한계 이단관식철모와 관부돌출형철모가 출토되는 지역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외래계 유물은 한식계 유물이다. 이 유물들은 낙랑군이나 대방군에서 유입되었다고 생각되며, 중국 산둥반도 일대에서 유입되는 유물도 있다.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되는 한식계 토기는 주로 평양일대의 분묘나 낙랑토성 등에서 보이는 낙랑토기의 제도술을 기반으로 하는 토기가 주로 출토된다.

석영혼입계토기인 백색토기(옹)는 김포 운양동유적과 인천 검단지구유적 등에서 출토가 되었다. 기존의 견해는 니질계 토기와 함께 낙랑토기의 범주로서 판단하였지만 최근 정인성(2016)은 백색토기를 평양지역에서 생산된 토기가 아니라 산동지역에서 생산된 토기가 유통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견해대로라면 한강하류역에서 한식계 토기가 서북부지역의 낙랑군이나 대방군 등의 군현을 통해 유입된 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동지역에서 직접적인 교류를 통하여 한식계 토기 중 일부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강하류역에서 토기류는 분묘에서 다량 부장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주로 부장되는 유물은 철기류이다. 그 중 한식계로 볼 수 있는 유물은 철장검이 있다. 철장검은 김포 운양동유적과 인천 검단지구에서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김포 운양동유적의 경우를 살펴보면 철장검은 총 7점이 출토되었는데 1-11지점 13호에서 출토된 철장검은 청동제 검격이 확인되고, 2-9지점 1호의 철장검은 청동제 초미금구가 부착되

3) 성정용, 2016, 「淸州一帶의 馬韓·百濟古墳과 그 性格」, 『충북문화재연구』제9호,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어 있었다. 인천 검단지구에서도 청동제 검격이 확인되는 철장검이 1-7b구역 1호 주구묘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청동제 검격과 초미금구를 사용하는 철장검은 漢式철기로서 중원지역이나 근원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것으로 동남부지역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 외에 한식계는 아니지만 낙랑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철초철장검의 존재가 확인된다.

서산 예천동유적 18-1호에서는 청동제 검초금구와 함께 청동제 심부(鑢部)가 확인되는 철장검이 출토되었다. 이 검초금구와 심부는 세형동검문화권에서 주로 확인되는 검 부속구로 별주식 동병동검이나 별주식 동병철검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물이다. 이러한 검 부속구는 서북부지역이나 영남지역에서 출토되는데 세형동검이나 철단검에서 사용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서산 예천동에서 출토된 동병철검은 유일하게 철장검에 검초금구가 사용된 것으로 이 철장검이 세형동검문화권에서 제작되었음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검초금구의 형태가 영남지역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형태로 영남지역보다는 서북부지역과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고고학으로 본 중서부지역 내 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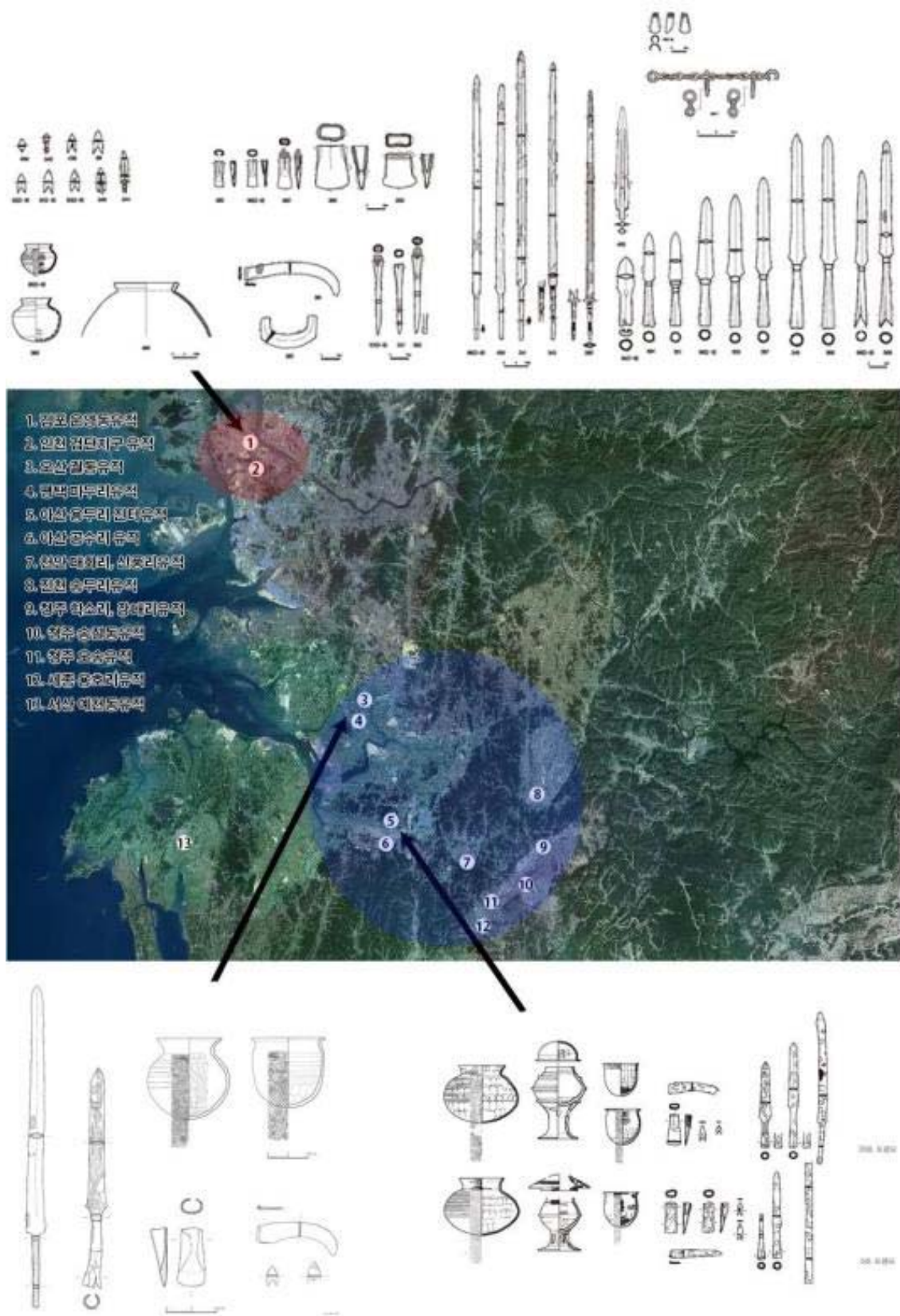
중서부지역에는 진·변한과 관련된 무덤과 유물, 중원계 유물과 부여계 유물, 재지세력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이 확인된다.

중서부지역에서 외래계 유물들이 확인되는 양상을 통해 살펴보면 크게 2개의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김포지역을 중심으로 중원계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는 분묘를 조영하는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충청내륙지역에 미호천을 중심으로 진·변한계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는 무덤을 조영하는 세력이다.

먼저 김포일대의 유적을 살펴보면 김포 운양동유적을 중심으로 인천 검단지구일대에서 다수의 분구묘가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성격을 살펴보면 토기는 낙랑계 토기로 볼 수 있는 니질계토기와 산동지역에서 제작되어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석영혼입계토기 일명 ‘백색토기’라고 불리는 토기가 출토되고 철기로는 중원계 철검에서 확인되는 검초금구와 청동제나 옥제 격(격)이 달린 철장검이 출토되고, 동남부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이단관식철모와 관부돌출형철모가 출토된다. 장신구류 중에서는 금제귀걸이가 출토되는 이러한 형태는 부여계로 길림의 유수노하심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이다.

김포일대의 분구묘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중원계, 부여계, 진·변한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이 중원계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원계 유물들이 대량으로 부장되는 지역은 김포일대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으로 김포와 인천 일대에 중원계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기남부지역에서 충청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보이는 유적을 살펴보면 목관(곽)묘와 주구목관(곽)묘에 원저단경호와 유개대부호, 원저옹, 철장검, 관부돌출형철모, 동물형대구 등이 부장되는데 이 유물이 출토되는 지점을 정리해보면 미호천을 중심으



도면 5. 중서부지역의 세력과 범위

로 해서 경기남부지역과 충북내륙지역, 충남내륙지역을 거치는 분포권역이 확인된다. 이 분포권역은 일정조건을 공유하는 집단이 충청내륙지역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세력은 비슷한 무덤을 조영하는 세력으로 크게 주구묘계통로 분류할 수 있는 세력이다. 그러나 무덤에 부장되는 유물의 성격에서 차이점이 확인된다. 이는 두 세력이 선택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무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 계기는 지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원계 유물이 다수 출토되는 김포일대는 한강의 하류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미호천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내륙지역보다 낙랑군이나 대방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해당한다. 또한 산동반도와도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낙랑·대방군과의 교류가 빈번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물의 양상도 중원계 유물이 주로 부장되며 진·변한계 유물이 일부 부장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양상이 확인된다.

반면 진·변한계 유물이 다수 출토되는 충청내륙지역에는 낙랑군이나 대방군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동남부지역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군현과 교역을 위해서는 충청내륙지역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중원계 유물보다는 진·변한계 유물의 출토 수량이 더 많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三燕墓制의 분류와 계통

- 오호십육국시대 북방유목민족의 국가 형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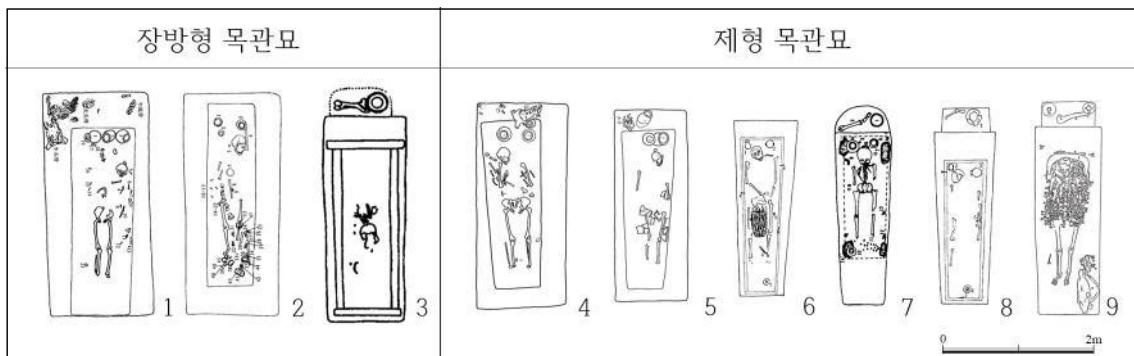
이현우 (부산대학교)

3세기 후반대 내몽고 동남지역의 서요하와 신개하 일대에서 확립된 모용선비의 고고학문화는 舍根-六家子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목관묘와 석곽묘를 주 묘제로 하고, 展沿壺와 展沿長胴壺, 장경호, 양이부호, 심발이 조합되며, 舌形 구연과 磨光암문, 암문, 침선문, 압인문 등으로 토기를 장식한다. 이때는 섭귀가 요서에서 “遼東之北”으로 부락을 옮겨 세력을 키우던 시점이다. 모용선비의 세력 확장과 289년 모용외의 요서 이주로 사근-육가자유형은 요서지역으로 확산되고 337년 모용황은 연을 건국한다. 모용선비는 요서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주변 지역의 문화 요소를 흡수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 그 다양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물질자료가 묘제로, 목관묘, 목곽묘, 전실묘, 석곽묘, 석실묘가 사근-육가자유형 및 삼연문화의 분포권 내에서 유행한다.

1. 목관묘

목관묘는 사근-육가자유형에서 기원한 묘제이다. 사근-육가자유형의 확산과 함께 요서지역에 유입되고 전연의 중원진출 이후 하남 안양 일대에서도 확인되며, 북연시기까지 사용된다. 목관은 구조적으로 묘광 내 조립식 목관과 이동식 목관으로 구분된다. 3세기 후반~4세기 30년대까지 내몽고 동남지역과 요서지역에서 양자가 병존한다. 묘광 내 조립식 목관은 장부 이음을 통해 결합되고, 이동식 목관은 목판 혹은 목개의 결구에 철정이 사용된다. 4세기 40년대 이후 이동식 목관이 점차 주류를 점하게 되며, 棺環을 부착하기도 한다.

목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과 제형이 있다. 前高後低의 제형목관은 모용선비의 특징적인 묘제로 인식되어 왔다(田立坤, 1993). 토기의 부장 풍속으로 보면, 요서지역 목관묘는 주로 목관 내에 토기가 부장되며, 보강토 상부와 頭龕에서도 확인된다. 하남지역의 목관묘는 관 내에는 토기가 부장되지 않고 모두 두감에 부장되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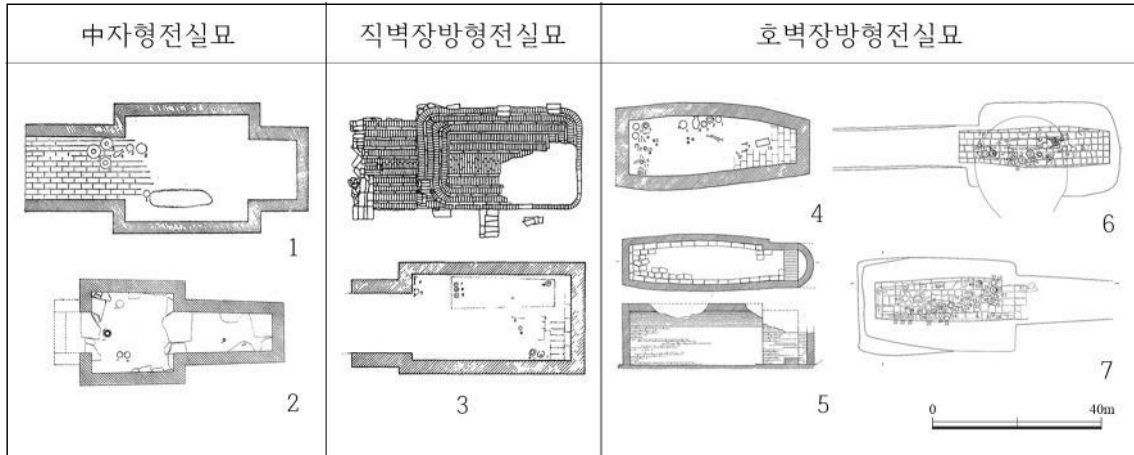


도 5. 목관묘

1.북표 대판영자99M2 2.북표 라마동ⅡM196 3.라마동ⅠM7 4.대판영자99M11 5.대판영자99M19 6.조양 초가촌묘 7.조양 십이대향전창M9022 8.조양 중형기기창묘 9.안양 효민둔M154

2. 전실묘

전실묘는 요서주랑 해안일대의 錦州, 葫蘆島와 대릉하 중류 동안의 義縣, 화북지역의 唐山 일대에서 확인된다. 묘실의 평면과 양벽의 형태에 따라 中자형, 직벽장방형전실묘, 호벽장방형 전실묘로 구분된다.



도 6. 전실묘

1.의현 고산둔수장M1 2.북표 하라마구묘 3.당산 란난묘 4.금주 이외묘 5.금주 전산묘 6.호로도 금성M2 7.금성M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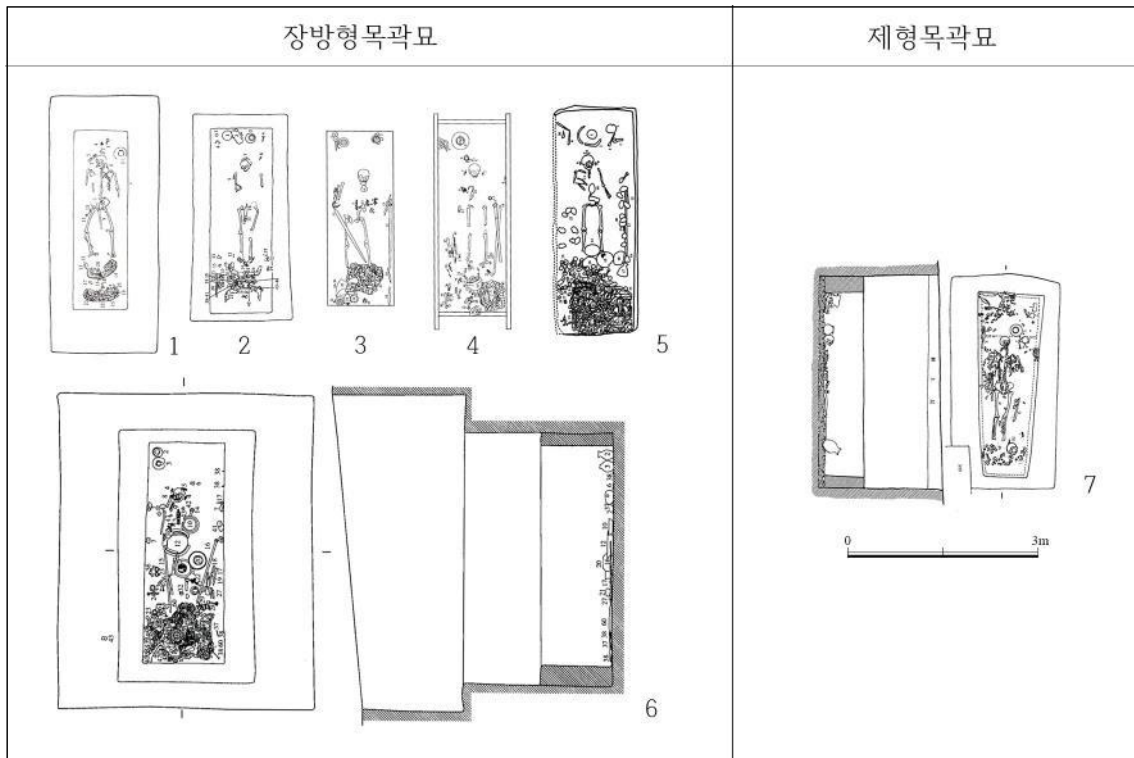
中자형 전실묘는 동한 만에 大保當과 包頭 등 오르도스 동북지역의 前堂後室墓가 요서지역으로 유입되어 변화한 묘제이다. 호벽장방형전실묘는 장방형직벽권정전실묘를 기반으로 하여 양장벽이 弧狀으로 돌출되는 구조를 채용한 것으로 산동과 북경지역에서 유입된 罽制 묘제의 영향을 받았다. 직벽장방형전실묘는 罽制 묘제의 특징으로, 사면결정식천정구조와 권정을 혼용하여 천정을 구축하였다.

이들 전실묘는 3세기 말 모용선비가 요서로 돌아온 이후부터 전연시기까지 모용선비에게 귀부한 漢人들의 묘제이다. 당시 화북과 산동 등지의 많은 유민과 사족들이 모용외에게 귀부하였고, 이들이 진제로 대표되는 진의 문화를 요서 일대로 전달한 주체가 되었다. 특히 이외묘에서 “燕國薊李廡 永昌三年 正月廿六 日亡” 이라고 새겨진 묘지전이 출토되어 피장자가 薊(현 북경)에서 온 李廡임을 알 수 있다.

3. 목곽묘

목곽묘는 요서 북표 일대에 한정되어 분포한다. 라마동유적에 주로 분포하며 대판영자유적에서도 1기 확인된다. 목곽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고, 이단굴광이 확인되기도 한다. 두부에는 토기, 환수철기, 철기, 칠기, 청동용기 등을 두고 족부에는 장식마구, 철·청동용기, 철제농구, 철제무기와 갑주 등을 부장한다. 피장자의 좌우에 철검, 철도와 철모 등의 무기와 금동인면식이 부장된 경우도 있다. 목개를 닫은 후 혹은 상부에 흙을 충전하는 과정 중에 제사를 지내는 데, 청동용기나 토기가 출토된다.

田立坤(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라마동 목곽묘는 부여의 길림 우수노하심 중층묘지 목곽묘와 매우 유사하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장방형 목곽묘는 모아산묘지나 우수노하심 중층묘지



도 7. 목곽묘

1. 북표 라마동ⅡM101 2.ⅡM203 3.ⅠM3 4.ⅠM3 5.ⅠM17 6.ⅠM5 7. 대판영자99M10

와 같이 부여의 고지에서만 확인되며, 내몽고 동부지역의 선비 관곽과는 구조가 다르다.

대판영자99M10호는 라마동유적과는 다른 제형목곽묘인데, 두부 위쪽에 별도의 목판을 세워 주곽과 부곽을 구분하였다. 부곽은 동물뼈, 토기, 철제 공구 등을 둔 부장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라마동 목곽묘가 부여계 목곽묘라면 대판영자99M10 목곽묘는 제형 목관에서 목곽의 구조와 장속을 받아들여 발전시킨 모용선비식 목곽묘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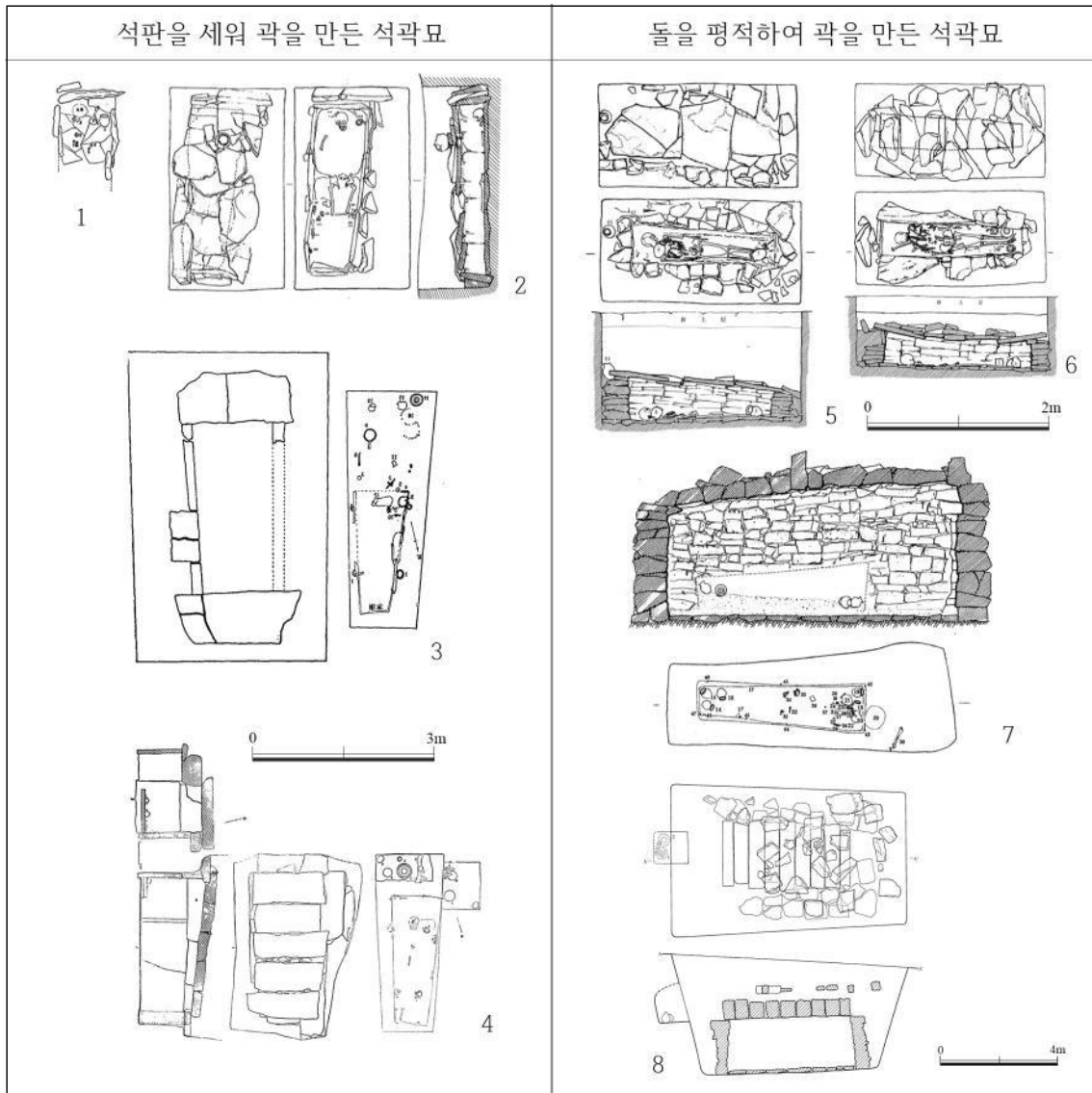
요서 북표 라마동유적에 부여계 목곽묘가 출현하는 배경은 田立坤(2003)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85년, 346년 모용선비의 2차례에 걸친 부여 공격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346년 모용황은 부여를 멸망시키고 5만여명의 부여인을 요서지역으로 끌고 왔는데, 부여왕을 장군으로 삼고 자신의 딸과 혼인시켰다. 라마동유적의 동쪽구역에 대형의 목곽묘가 축조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다.

4. 석곽묘

석곽묘는 사근-육가자유형에서 기원한 묘제로, 내몽고 동남지역과 요서·요동지역에서 확인된다. 석곽묘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과 제형이 있고, 석판을 세워 석곽을 만드는 것과 돌을 평적하여 석곽을 만드는 것이 있다. 제형 석곽은 대부분 앞이 넓고 높고 뒤가 좁고 낮은 형태이다. 처음에는 불규칙한 다수의 석판을 중첩하여 천정을 덮다가 석곽이 점차 정교해지고 대형화되면서 가공한 대형의 판석을 순서대로 놓다가 마지막에는 직육면체상으로 가공한 석봉으로 석곽을 밀폐한다.

석곽묘는 전 계층의 모용선비의 묘제로 사용된다. 특히 대형의 석곽묘는 상위계층의 모용선

비뿐만 아니라 최상위계층의 한인 묘제로도 채용되며, 북연시기에는 왕족의 묘제로도 채택된다. 조양지역의 대형석곽묘에서 묘지석이 확인되었는데, “燕建興十年昌黎太守清河東武城崔通”이라고 새겨져 있어 창려태수를 지낸 최흠의 묘임을 알 수 있다. 최흠은 산동인으로, 후연에서 상사좌승, 범양창려 2군태수를 역임하였다. 북표 서관영자M1호 역시 대형의 석곽묘인데, 출토된 4점의 인장을 통해 북연의 왕족 풍소불의 묘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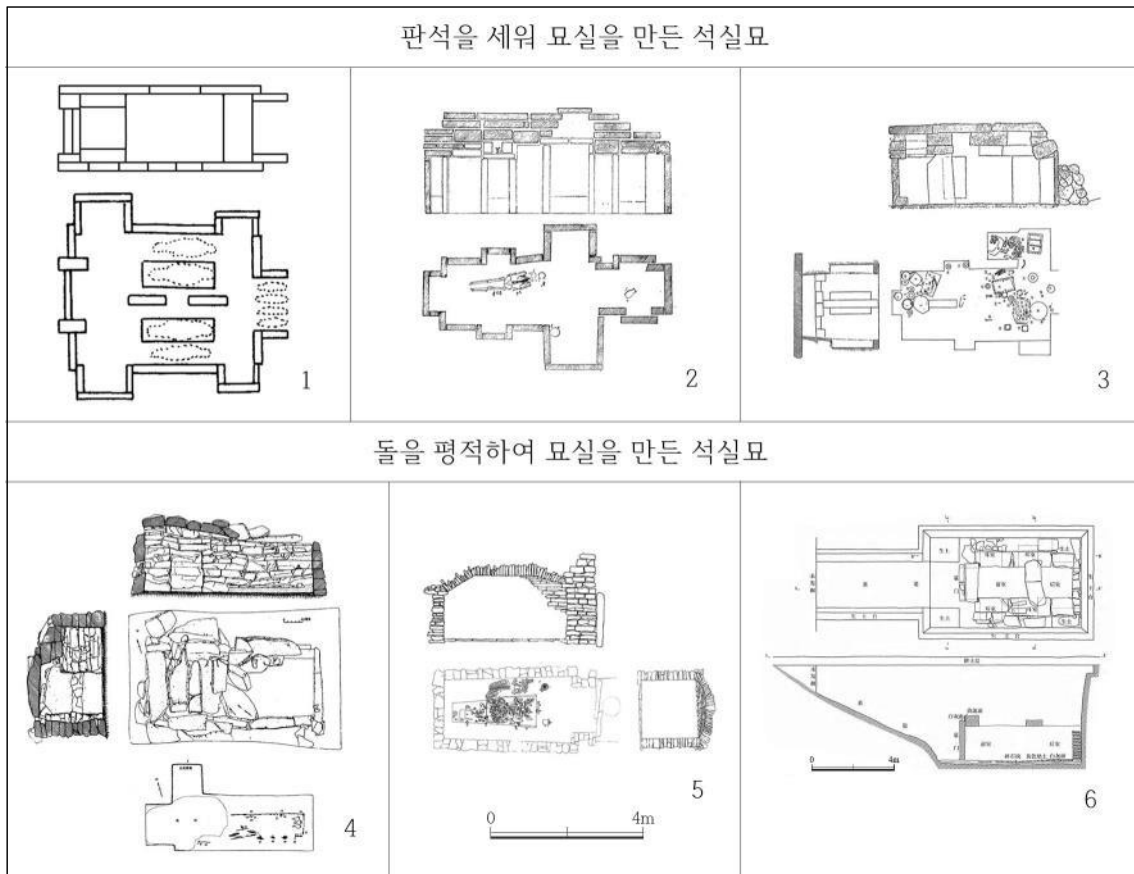
도 8. 석곽묘

1.북표 방신촌M3 2.라마동ⅡM290 3.조양 최흠묘 4.조양 팔보촌M1 5.대판영자99M8 6.대판영자99M6 7.조양 전초구M2 8.북표 서관영자M1(풍소불묘)

5. 석실묘

석실묘는 요서 대소릉하유역에 분포하며, 주로 조양지역에 집중된다. 일반적으로 묘도, 용도, 묘실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일부 耳室이나 壁龕이 있다. 큰 판석을 세워 묘실을 구축한 것과 돌을 평적하여 묘실을 만든 것이 있다. 전자는 평면 형태에 따라 工자형, 卍자형, 凸자

형으로 구분되며, 모두 여러 개의 큰 판석으로 천정을 덮는다. 이들 석실은 요양한문화로 대표되는 요양지역의 벽화석실묘가 요서지역에 유입된 것이다.凸자형 석실묘에는 묘주인도를 주제재로 한 벽화도 그려진다. 요양 석실묘가 요서에 들어온 이후 이실이 쇠퇴하여 벽감화되고 돌을 쌓아 이실을 만드는 등 토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후자는 크게 석곽의 영향을 받은 석실묘, 전실을 모방하여 만든 석실묘, 판석을 세워 만든 석실묘에서 변화한 것으로 나뉜다. 석곽묘의 영향을 받은 석실묘는 그 구조는 장방형 석곽묘와 완전 동일하나 묘문을 설치하여 장법이 석실화된 것이다. 전실을 모방하여 만든 석실묘는 석판을 아치형으로 쌓아 권정의 천정을 만든 석실묘이다. 판석을 세워 만든 석실묘에서 변화한 것은 평면 형태는 요양 석실묘와 같지만 돌을 쌓아 네 벽을 구축한 석실묘이다.



도 9. 석실묘

1. 금현 창성묘 2.금주 안화가묘 3.원대자벽화묘 4.전초구M1 5.십이대전장88M1 6.서관영자 M4

판석을 세워 묘실을 구축한 석실묘는 3세기말 모용선비가 요서로 돌아온 이후 요양사족의 유입과 함께 요서에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요양과 동일한 구조와 장속을 가지지만 점차 토착화되어 상위계층의 한인의 묘제로 채택된다. 돌을 평적하여 묘실을 만든 석실묘는 전연 건국 이후 전실묘와 석곽묘를 바탕으로 변화한 묘제로 상위계층의 한인뿐만 아니라 모용선비의 묘제로도 채용된다.

3세기말 모용외가 요서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내몽고 동남지역의 목관묘와 석곽묘가 요서 일대에 유입된다. 이후 진문화의 확산과 함께 전실묘가 축조되고, 요양 일대의 석실묘가 유입된

다. 모용선비에게 귀부한 화북과 요서,요동 일대의 한인의 묘제이다. 또한 모용항의 부여 공격과 함께 대형의 목곽묘가 라마동유적에 등장한다. 이들 묘제 중 석곽묘와 석실묘는 요서지역에서 토착화되고 발전하면서 최상위계층의 모용선비의 묘제로 채택된다. 오호십육국시기 많은 북방 민족들이 중원에 진출하여 국가를 건립한다. 그 중 모용선비는 요서에 정착하여 연을 건국하고 주변의 여러 민족과 문화 요소를 흡수하면서 발전하여 하남, 산둥지역까지 진출한다. 그 과정 중 복속한 여러 민족의 묘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일부 요소들을 채용하여 자신들의 석곽묘를 개량하고 석실묘를 발전시킨다. 그 결과가 북연왕족의 묘역 서관영자묘지에 축조된 대형 석곽(M1)·석실(M4)묘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李鉉宇,2019,「早期慕容鮮卑及三燕時期墓葬的考古學研究」, 北京大學 考古文博學院 博士學位論文.

田立坤,1993,「鮮卑文化源流的考古學考察」,『靑果集』,知識出版社.

田立坤,2003,「關於北票喇嘛洞三燕文化墓地的幾個問題」,『遼寧考古文集』,遼寧人民出版社.

17세기 전반 朝鮮과 後金·淸의 國交 수립 과정 연구

장정수(고려대)

본 논문은 조선과 청의 國交 수립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그동안 조·청관계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는 明朝와 淸朝의 교체라는 대외적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여, 조선이 명 중심의 기존 질서에서 이탈하고 청 중심으로 재편된 새로운 질서에 포섭 내지 편입되었다고 설명되어 왔다.⁴⁾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묘호란 이후의 형제관계, 병자호란 이후의 군신관계라는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형제관계는 사실상 ‘과도기’로 설정되어 병자호란을 통해 조명관계가 조청관계로 연장된다는 것이 주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심과 주변으로 구성된 ‘질서’ 이론이 ‘중심’에 편향되어 설명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조선과 청의 관계가 형성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전후의 인과적이고 연속적인 구도 안에서 다루고자 했다.

조선의 관점에서 볼 때, 외교의 대상으로는 명·청 그리고 일본이 있었다. 그밖에 琉球도 隣國으로 인식되었지만, 그 중요도는 아무래도 낮다고 할 수 있다. 조선과 명·청의 관계를 ‘조공체제의 전형’으로 여기는 관점에 따르면, 조선은 명과 청의 질서에 속했으며 군신의례에 입각한 조공체제의 모범이었다.⁵⁾ 한중관계사의 기초적인 구조가 한반도와 중원 국가의 관계로 설명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원 대륙의 정치 지형 변화로부터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조·청관계의 기원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국교 성립 과정은 이러한 설명과는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쳤다. 청의 건설자인 만주족은 여진인의 후손이었고, 조선은 여진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조선인들에게 청은 여진의 후예⁶⁾였고, 여진인들이 건설한 後金의 後身이 淸朝였다. 따라서 明朝→淸朝라는 선후의 계승관계는 중국의 역대왕조를 조망한 후대인들의 구상에 지나지 않으며, 중국역대왕조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북방민족들의 역할을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특히 명조에 이어 중화의 정통을 계승했다고 믿었던 조선인들에게 청조는 후금의 확대된 버전으로 여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조선의 대청관계는 종래의 대여진 정책을 후금과의 國交로 전환시키고, 이를 다시 청조와의 관계로 전환하는 연속적인 구도 안에서 살펴야 한다.

조선과 청의 외교관계는 흔히 조공책봉관계⁷⁾의 전형적 모델로 평가받아 왔다. 양국

4) 민경준, 2005, 「明·淸交替와 한중관계」,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170쪽; 계승법, 2009, 「조선시대 동아시아 질서와 한중관계: 쟁점별 분석과 이해」,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127쪽; 구범진, 2012,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민음사, 181쪽.

5) 全海宗, 1970,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53쪽.

6) 『尊周彙編』, 義例, “淸人卽女眞之一部族也.”

7) 전통시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페어뱅크의 ‘조공체제’, 니시지마 사다오의 ‘책봉체제’가 한동안 유력한 이론으로 통용되다가 최근에는 다양한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비록 의례적인 측면이 강하더라도 조공과 책봉이라는 행위 자체는 실재했던 만큼 한중관계를 조공책봉관계로 보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金昌洙, 2016, 『19세기 朝鮮·淸 관계와 使臣外交』,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의 ‘전형적’관계는 명이 건국된 1368년으로 소급되기도 한다.⁸⁾ 페어뱅크에 따르면, 청 중심의 질서는 명으로부터 이어받은 방식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조정한 ‘조공체제’를 근간으로 유지되었다.⁹⁾ 조청관계 연구를 선도한 전해종 역시 조청관계를 ‘조공체제의 모델’이라면서, 그것이 명대의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이었다고 보았다.¹⁰⁾

이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중심’과 ‘주변’으로 구성된 ‘중국적 세계’는 체계적 논증이나 통시적 적용이 어려웠다. 맨콜은 조공체제가 제도로 자리잡은 것이 아니며, 사실상 華夷觀을 서구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보았다.¹¹⁾ ‘조공체제’ 이론이 ‘중국’의 관점에 치우쳐 있어 ‘질서’의 수용자인 ‘주변’의 입장이 거의 고려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어졌다.¹²⁾ 중심과 주변은 유동적이었고, 따라서 조공과 책봉이라는 행위로 구현되는 의례적 관계도 일관된 틀로 존재하지 않았다.¹³⁾

중국사에서 북방민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중국’을 하나의 역사적 주체로 설정하는 중국왕조사적 관점에 대한 비판도 있다.¹⁴⁾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신청사’ 연구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청제국의 건설자로서 만주족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¹⁵⁾ 이에 따라 청조가 ‘漢化된 북방민족의 왕조’로서 명조를 계승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추세이다.

조선시대 대외관계사 분야에서는 조공과 책봉에 기초한 중국 중심의 질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대명·대청관계의 차별성보다는 유사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더 이상 조선과 명·청의 관계를 조공책봉체제의 전형으로까지 평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¹⁶⁾ 조선의 대청인식이 대명인식과 달랐다는 점이나, 명질서와 청질서의 차이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축적된 결과이다. 다만, 조청관계가 조공책봉의 틀 안에서 작동했고 그것이 조명관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인식은 여전하다.¹⁷⁾ 그러나 조선과 명·청의 관계가 ‘조공책봉’으로 볼 수 있더라도 ‘국가 간의 관

8) 全海宗, 1970, 앞의 책, 50~54쪽; Clark, Donald. 1998,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Under the Ming,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8: The Ming Dynasty, 1368-1644, part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72-300; Yuankang Wang, 2011, *Harmony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173.

9) John K. Fairbank and S. Y. T'eng, 1941, *On the Ch'ing Tributary System,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6, No.2*, pp.135-144.

10) 全海宗, 1965, 「<中國의 世界秩序>에 관한 學術會議」, 『歷史學報』 29, 161~166쪽; Hae-jong Chun, 1968,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in the Ch'ing Perio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90.

11) Mark Mancall, 1968, The Ch'ing Tribute System: An Interpretive essay,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63.

12) 김진웅, 2013, 「조공제도에 대한 서구학계의 해석 검토」, 『歷史教育論集』 50, 419쪽.

13) 피터 윤, 2002,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연구』 45(3).

14) 李成珪, 2005, 「中華帝國의 팽창과 축소: 그 이념과 실제」, 『歷史學報』 186; 윌리엄 로 저, 기세찬 옮김, 2014, 『청: 중국 최후의 제국』, 너머북스; 양하이잉 저, 이상규 옮김, 2018, 『‘오랑캐’ 주변국 지식인이 쓴 反중국 역사』, 살림.

15) 윤영인, 2006, 「만주족의 정체성과 청대사 연구」, 『만주연구』 5; 파멜라 크로슬리, 2010, 「‘신’청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김선민, 2011, 「만주제국인가 청 제국인가」, 『史叢』 74.

16) 계승범은 전통시대 한중관계가 조공책봉관계로 맺어졌다면서도 전형적인 모델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사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계승범, 2009, 앞의 글, 125~126쪽 및 144~146쪽).

계'라는 외교의 본질을 고려할 때, 그것이 당사자들의 상호인식을 고루 반영하지 못한 것도 부정하기 힘들다.

조선의 대외관계를 사대와 교린으로 양분해온 것도 조공체제에 입각한 이해방식을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사대는 수직적, 교린은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중심과 주변의 계서적 질서를 강조하는 조공책봉체제와 묘한 접점을 가지게 된다. 조공체제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심'에 대한 조선의 외교정책이 사대, '주변'과의 관계는 교린이었던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대와 교린은 조선의 수직적, 수평적 대외관계를 가능하는 이분법적 지표가 아니었다. '교린'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기에 따라 '事大字小'도 그 일부에 포함될 수 있었다.¹⁸⁾ 조선은 사대에 상응하여 '人臣無外交(私交)'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했고, 따라서 명·청을 제외한 어떤 국가와도 정례적인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다. 일본은 대표적 '隣國'이었지만, 양국 간의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왕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교린'은 특정한 형태의 외교정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대뿐만 아니라 '夷狄'에 대한 羈縻策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했다.¹⁹⁾ 즉, '사대교린'은 조선이 표방한 대외관계상의 기초였고 실제 대외정책은 대상과 시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조선의 현실적 대외정책은 교섭 상대가 국가인지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대별되었다. 하나는 명·일본·琉球 등에 대한 외교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野人이나 대마도 倭人 등에 대한 변경정책이었다. 전자가 군주를 중심으로 한 행정조직과 지방제도를 갖추고 일정한 영역과 그에 속한 인민을 가진 국가 간의 상호 관계라면, 후자는 변경의 외연에 존재하던 정치 세력에 대해 시행한 일방향의 정책이었다.

조선에서는 외교정책과 변경정책을 아울러 교린으로 통칭하기도 하고, 사대라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으며 '羈縻'라는 말로 변경정책을 구분하기도 했다. 사대 역시 단일한 해석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은 대명관계를 교린으로 표현한 적이 없지만, 대청관계는 사대 외에도 교린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있었다.²⁰⁾

교린은 '인국'과의 통교를 의미한다. 『국조오례의』의 '賓禮'조에 따르면 15세기 말엽, 인국은 일본과 유구였다.²¹⁾ 정치적 구심점이 부재한 탓에 국가가 아니었던 '여진'

17) 계승범, 2010, 「15~17세기 동아시아 속의 조선」,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구범진, 2012, 앞의 책; 조영현, 2018, 「15세기 한중관계」, 『조선시대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18) 손승철, 2006,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교린관계의 허와 실』, 경인문화사, 20~23쪽.

19) 이 때문에 조선과 일본의 교린관계에서 대마도와의 관계는 '羈縻交隣', 막부와의 관계는 '敵禮交隣'이라 구분하기도 한다(閔德基, 1998, 「조선시대 交隣의 理念과 국제 사회의 交隣」, 『民族文化』21, 29쪽 및, 손승철, 2006, 앞의 책, 51~76쪽). 조선의 對여진 정책에 관해서 김구진은 '교린정책', 한성주는 '기미교린정책'이라고 이해했다(김구진, 2010, 「조선시대 女眞에 대한 정책」, 『白山學報』88, 267쪽; 한성주, 2011,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14쪽). 최근 한명기는 조선이 추구했던 사대가 일방적·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字小'를 전제로 하는 쌍방적이고 호혜적인 모습을 이상으로 했음을 지적하고, 교린에 대해서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한명기, 2018,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편), 동북아역사재단, 17~18쪽).

20) 『臚錄類抄』 10冊(交隣3)·11冊(交隣4).

21) 『國朝五禮儀』 卷5, 賓禮, 受隣國書幣儀, "隣國 如日本琉球國之類"

은 통교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던 셈이다. 조선의 대여진 정책은 ‘기미’에 입각한 변경정책이었는데, 이는 17세기 초 누르하치가 여진 세력을 통합하기 전까지 지속된 방식이었다. 정묘호란은 조선이 후금을 인국으로 인정한 계기였고, 이때 수립된 국교는 병자호란을 통해 군신의례에 준한 형태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선과 여진의 관계→조선과 후금의 국교 수립→조선과 청조의 국교 재편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조청국교의 수립 과정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논점 몇 가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조공체제 이론은 ‘華·夷’이라는 관념적 구분을 사실로 전제하고 만들어진 프레임이다.

②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兩亂’이라는 하나의 시기로 설정한 ‘국난극복사’적 관점은 전후 대외관계와의 단절을 초래했다.

③조선과 명·청은 ‘한중관계사’의 틀이지만 정작 조선인들이 인식한 여진, 後金 등은 북방민족사의 범주에 들어가 있어 상호 충돌한다. 청조는 명조가 아닌 후금의 계승자이다.

④조선과 여진의 관계를 ‘淸朝興起史’로 대체했지만, 청대사와 조선후기 대청관계사는 다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⑤정묘호란 이후의 국교를 ‘형제’라는 수사적 표현에 입각하여 과도기로 접근하면 당대인들의 관점은 가려진다. 정묘호란 이후 조선과 후금은 我國, 貴國, 兩國, 隣國이라는 표현을 서로 쓰는 명백한 國交였고, 조·청관계는 그러한 관계로부터 비롯되었다. 국교의 성립은 待夷之道에서 隣國之道로의 전환이다.

⑥조선·후금의 국교는 조선이 여진인들의 국가를 ‘이적’이 아닌 별도의 국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대여진 변경정책이, 대후금 외교정책으로 변화하는 직접적인 계기로서 주목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상의 논점을 종합하여 조선과 여진 諸部, 조선과 후금, 조선과 청의 연속적인 구도를 통해서 조선·청의 국교 성립 과정을 고찰하였다. 글은 총 3장으로 구성되었고, 10개의 절로 세분화되었으며 각 절은 다시 3~4개의 소절로 구성했다. 이를 장절별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장은 “對女眞 정책과 藩胡規例의 성립”이다.

1장 1절은 “對女眞 정책 수립의 배경과 내용”으로 조선의 건국 이후 대여진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과 실상을 검토하고(소절1), 16세기 말 건주여진의 누르하치가 通交를 요구해오면서 실행한 배후교섭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며(소절2) 또 다른 여진 부족인 흘룬이 조선을 압박하면서 종래의 대여진 정책이 무력화되는 과정을 살폈다(소절3).

1장 2절은 “對明 ‘虜情’ 보고와 明의 대응”으로 조선이 건주여진·흘룬의 압박을 받

아 명의 요동아문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된 경위(소절1)와 명 요동아문과 조선의 상호작용(소절2), 명 조정의 개입과 그에 따른 여파(소절3)를 검토하였다.

1장 3절은 “藩胡規例의 적용과 이원적 對女眞 정책”이다. 본 절에서는 조선이 건주여진과 흘룬 가운데, 흘룬과 먼저 화친하고 그들에게 종래의 대여진 정책과 유사한 형태의 통교 관계(藩胡規例)를 구축했음을 밝히고(소절1), 동일한 방식을 건주여진에 대해서도 적용했다는 사실을 논증했으며(소절2), 이러한 ‘이원적’ 교섭이 건주여진의 흘룬 병합으로 인해 종언을 고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소절3)을 다루었다.

1장 4절은 “對女眞 정책의 일원화와 藩胡規例의 형해화”이다. 본 절에서는 흘룬을 제압하고 세력을 비약적으로 신장한 건주여진이 명 변경 인근의 여허部를 공격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던 점(소절1)과 이러한 흐름에 공명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이 명의 중개기구라 할 수 있는 요동아문과 더욱 친밀해지면서 동시에 불신감이 고조되는 과정을 살폈으며(소절2), 조선이 후금의 건국 이후에도 이전의 對건주여진 관계와 다른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인 외교노선을 걷고 이 때문에 조·명의 공조관계는 처음부터 불안정했음을 논증했다(소절3).

2장은 “對明·對後金 二重外交의 전개”이다.

2장 1절은 “명의 徵兵 요구와 對後金 배후교섭”이다. 본 절에서는 먼저 명이 對후금 협력을 요구하기까지의 배경 및 명 조정 내부에서 조선을 활용하겠다는 움직임이 살폈고(소절1), 이어서 조선 조정 안에서 촉발된 助兵 관련 논쟁의 실상을 5가지의 쟁점²²⁾을 토대로 再考하였으며(소절2), 그 와중에도 조선이 후금과의 배후교섭을 유지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을 논증했다(소절3).

2장 2절은 “朝·明 연합군의 出兵과 對後金 비밀교섭”이다. 본 절에서는 조선과 명의 연합군인 東路軍과 深河戰役에 대해서 살피되 出兵 당시 조선 조정의 내부 논의를 정밀하게 검토하고(1소절), 이 전투 당시 光海君이 내렸다는 密旨의 진위 및 실상에 대해서 종전에서 살피지 못한 지점과 사료들을 통해서 그것이 實在했음을 논증했으며(2소절), 전투 직후 후금에서 通交를 요구해오자 조선이 제한적으로 응하여 화친은 아니라도 대화의 창구가 열리게 되었음을 밝혔다(소절3).

2장 3절은 “二重外交의 전개와 對後金 國書”이다. 본 절에서는 조선이 명·후금과 동시에 벌인 이중외교를 검토하고 그것이 ‘중립외교’로 설명될 수 없음을 밝혔으며(1소절), 명에서 조선·후금의 교섭을 알게 되자 조선이 명에 대해서는 변무외교, 후금과는 口頭 교섭을 벌이는 이중외교를 이어간 점을 검토하였고(2소절), 1621년 후금이 요동 일대를 점령하면서 이중외교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3소절), 광해군이 후금의 압박으로 인해 마침내 국왕 명의의 서신 즉, 國書를 발송했음을 살폈다(4소절).

22) ①勅書의 유무, ②병력의 규모(감축 시도), ③출병과 변경 방어(兩全도모), ④難獨當一面의 논리, ⑤胡書의 보고.

3장은 “對後金 國交의 수립과 對淸 관계의 적용”이다.

3장 1절은 “仁祖反正과 對後金 교섭의 단절”이다. 본 절에서는 먼저 仁祖反正 이후 조선이 대외정책으로 시행했다는 ‘親明排金 정책’의 실상을 살피고(1소절), 그것이 퇴조하게 된 경위와 방어전략의 변화를 검토했으며(2소절), 단절된 대후금 교섭의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사실과 그 배경 등 조선의 타협적인 정치를 다루었다(3소절).

3장 2절은 “丁卯胡亂과 國交의 定例化 논의 과정”이다. 본 절은 이 논문의 핵심이 되는 절이다. 먼저 후금의 침입과 조선의 대응을 살핌으로써 양국이 정묘호란 당시 서로 타협적인 자세로 화친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음을 밝혔고(1소절), 맹약·화친·국교를 3단계로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講和와 盟約의 실상을 재고했으며(2소절), 화친의 성립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지 후금군의 철수와 各守封疆의 관철이라는 측면에서 논증했다(3소절). 또한 4소절에서는 조선이 후금국의 칸을 부른 ‘國汗’이라는 명칭의 기원, 양국의 國書, 사신의 파견, 사신의 접대, 開市, 歲幣의 6가지 항목으로 양국의 국교가 정례되어가는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3장 3절은 “丙子胡亂과 對淸 ‘君臣儀禮’의 수용”이다. 본 절은 병자호란의 발발 원인으로 흥타이지의 稱帝에 따른 종래의 정례화 된 國交가 유지될 수 없었던 점을 들었으며 이는 전쟁이 조선의 絶和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의 평면적 해석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1소절). 아울러 병자호란 직전 후금이 아닌 청조와의 교섭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척화론의 이면에 숨겨진 타협적인 외교의 실상을 들여다보았다(2소절). 3소절은 본 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조선이 청의 황제 흥타이지에게 보낸 7차의 국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講和의 전체적인 흐름과 조선의 변화된 자세를 정밀하게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병자호란 이후 형성된 조선과 청의 국교가 소현세자 등의 인질, 피로인 쇄환, 명과의 전쟁에 대한 助兵 요구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체계화된 점, 1644년 명이 멸망한 뒤로 청의 압박이 수그러들면서 양국의 국교가 새로운 형태이지만 정상적인 궤도로 오르기 시작한 점을 살폈다(4소절).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흐름으로 작성되었다. 조선이 명 질서에서 이탈하여, 청 질서로 편입된다는 중국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조선인들의 당대적 Context에 최대한 近似하게 접근하여 제시하고자 했다. 조·청 국교의 수립 과정은 조선이 대여진 변경 정책을 대후금 국교로, 다시 대청국교로 전환하는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이었으며 이러한 기원(Genesis)으로 인해 조청관계는 조명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의례적 차원에서 조선과 청의 국교가 대등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국교’라는 것이 반드시 ‘대등한 주권국’ 간의 관계라는 발상 자체가 근대적인 개념임에 주의해야 한다. 조선인들은 명과 달리 청을 夷狄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유지했고 그들을 明朝의 계승자라고 여기지 않았다. 도리어 스스로를 명조의 계승자, 중화의 적통이라는 중화계승 의식을 발전시키며 자의식을 새로이 가다듬었다. 서구 열강의 압력이 가해지기 이전,

조선인들에게 청조는 여전히 이적의 국가였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조청관계 형성 과정에서 기인했다. 조선은 그들을 국가로 인정하고, 의례적인 상위 권력으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중화물물의 담지자라는 자체적인 자부심을 바탕으로 自國 의식을 강화해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동일한 관념의 공유자가 아닌 ‘他國’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사회에서 대청사대라는 현실의 외교와 대명익리·존주대의라는 관념적 이상이 모순된 공존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抗戰以前北平市政府的旅遊事業 (1928-1937)

중일전쟁 이전 베이핑 시정부의 관광사업(1928-1937)

홍영미(북경대)

1. 문제의식

중일전쟁 발발 전 10년(1928-1937)은 南京國民政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각 방면의 현대화 건설에서 비교적 뚜렷한 성과를 거둔 '황금시대'로 불린다. 이 시기는 각 도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시기인데, 도시관리기구로서 시정부가 설치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공용사업의 추진이 가능했다. 이 시기 베이핑 시정부는 『北平遊覽區建設計劃』(이하『유람구』로 약칭)을 수립하고 관광 진흥을 통해 도시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런데 1928년 6월에 북벌이 완성된 이후에도 난징국민정부와 군벌들의 세력 다툼은 끊이지 않았고, 1930년 5월에 발발한 中原大戰으로 베이핑은 그 각축전의 무대가 되었다. 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군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침략에 박차를 가하여, 1931년에는 만주사변을 일으켜 東北지역을 점령하였고 1933년에는 華北지역까지 침략 범위를 확대하여 베이핑 일대를 위협하였다. 塘沽協定の 체결로 전쟁은 잠시 멈췄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핑의 국방 건설은 논하지 않고 유람구를 제의”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²³⁾ 시정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광 진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유람구 건설의 의의는 실로 국방 건설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전혀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중과 완급을 가릴 수 없다. 외교적으로, 외빈을 불러모아 우리나라를 관광시키는 것은 실로 우리나라 문화를 선양하고 국제적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경제적으로, 농촌이 파산하고 외국 상품 투매가 진행되는 이때, 실업을 진흥시켜 초과 수입된 대량의 상품을 만회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이고 긴요한 계획이며 정부와 국민이 응당 함께 노력해야 할 목표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거액의 현금을 취하는 것만큼 수월하지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는다.²⁴⁾

19세기 말 20세기 초, 관광은 이미 서구와 일본에서 산업의 일종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형의 수출'로 중시되고 있었다.²⁵⁾ 중국의 각계 인사들은 관광 수입으로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선한 나라들의 선례를 통해 관

23) 北平市政府 編, 『北平遊覽區建設計劃』, 北平市政府, 1934, 1쪽.

24) 北平市政府 編, 『北平遊覽區建設計劃』, 北平市政府, 1934, 1쪽.

25) 王淑良, 『中國現代旅遊史』, 南京, 東南大學出版社, 2005, 前言7쪽.

광 진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1928년 이후 지속된 세계 실물경제의 위축과 1931년의 만주사변으로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관광산업을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²⁶⁾ 베이핑 시정부가 불황에 직면한 도시를 활성화시킬 방안으로 관광산업을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 관광사업의 목적은 외화수익의 증대에 그치지 않고, 관광 개발을 통해 도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여 누구든지 살고 싶은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²⁷⁾

문제는 시정부가 1935년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계획이 『유람구』가 아닌 『舊都文物整理計劃』(이하『구도』로 약칭)이라는 것이다. 이 시기 베이핑의 도시 건설 과정과 특징을 분석한 기존 연구성과들은 두 계획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전자가 폐지된 후 후자가 실시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²⁸⁾ 그런데 『유람구』는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었으므로 두 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베이핑의 도시 발전전략의 변모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이 도시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탐구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정부가 1928년부터 관광 진흥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논의과정, 『유람구』의 구체적 내용과 의의, 『구도』의 수립 배경과 구체적 내용, 시행과정, 성과 및 영향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2. 연구의의

중국 도시사 연구에서 수도 北京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주변적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上海에 압도되어 있을 뿐 아니라 天津, 武漢, 重慶 등 도시사 연구가 시작된 초기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도시들과 비교해 연구성과가 많은 것도 아니다.²⁹⁾ 시기적 으로는 난징국민정부 시기 연구가 가장 활발하긴 하지만 연구 주제가 베이핑을 무대로 하는 정치투쟁에 집중되어 있었고 도시의 현대화 노정과 그 특징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 그중 『유람구』와 『구도』를 다룬 연구도 둘의 관계에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 사료에 기반하여 이를 정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기존 연구들이 이미 출판된 『유람구』 당안을 주로 인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4대 베이핑 시장 袁良이 1933년에 부임하자마자 수립한 도시 종합건설계획인

26) 李不同, 「世界各國之旅行事業」, 『旅行雜誌』4(5), 1930, 81-87쪽; 陳爭平, 『1895-1936年中國國際收支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113-114쪽.

27) 北平市政府秘書處第一科統計股 編, 『北平市政府二十二年下半年行政紀要』, 京城印書局, 1934, 序言4쪽.

28) 저서로는 Madeleine Yue Dong, *Republican Beijing: The City and Its Histories*,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王亞男, 『1900~1949年北京的城市規劃與建設研究』, 南京, 東南大學出版社, 2008; 許慧琦, 『故都新貌: 遷都後到抗戰前的北平城市消費(1928~1937)』, 台北, 台灣學生書局, 2008; 王煦, 『舊都新造: 民國時期北平市政建設研究(1928-1937)』, 北京, 人民出版社, 2014; 孫冬虎·王均, 『民國北京(北平)城市形態與功能演變』, 廣州, 華南理工大學出版社, 2015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王謙, 「北平文化旅遊中心建設與故都城市空間生產」, 『中國近代建築研究與保護』10,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16; 王謙, 「故都北平的文化生產與文學記憶」, 『北京社會科學』11, 2017; 王建偉, 「20世紀30年代北京的舊都文物整理計劃」, 『北京檔案』7, 2019; 王建偉, 「國都南遷與北平城市發展路徑的討論及其規劃(1928-1935)」, 『江蘇社會科學』1, 2020 등이 있다.

29) 윤형진, 「중국 베이징 지역 역사 연구의 동향과 특성」, 『서울과 역사』100, 2018, 177-179쪽.

『市政初期建設計劃(三年計劃)』 당안부터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 계획서는 1934년 1월부터 1936년 12월까지 3년 사이에 추진할 사회·공안·교육·재정·토지·工程·위생 등 각 방면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고는 그 가운데 「劃平全市爲遊覽區提倡遊覽事業計劃」이 『유람구』의 전신이라고 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위안량은 부임할 때부터 베이핑을 관광도시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유람구』는 1928년부터 시도되어 온 다양한 관광 진흥책을 비판적으로 수렴하여 완성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³⁰⁾

한편, 『유람구』와 『구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본고는 대만의 國史館에 소장된 『國民政府檔案』(1934 - 1937) 가운데 「舊都文物整理委員會組織規程」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行政院駐北平政務整理委員會에서 『유람구』를 심의한 후 ‘유람구’라는 명칭의 변경과 건설 기간 및 비용의 조정을 요구하였고, 이와 별도로 구도문물정리 계획의 시행절차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³¹⁾ 즉, 『유람구』와 『구도』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놓인 것이 아니며, 계획의 구체적 내용으로 보아도 후자는 전자의 고건축물 보수 항목 및 도로건설항목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시정부가 1935년부터 『구도』를 실시한 것은 관광 진흥이라는 발전전략을 포기한 것이 아닌 그 일환이라고 파악하였다.

본고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당안을 충분히 이용하여 『시정초기건설계획(3년계획)』, 『유람구』, 『구도』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1933년 이전 각계에서 논의된 베이핑의 활성화 방안까지 살펴봄으로써 1928년부터 1937년까지 베이핑이 관광 진흥을 통한 도시발전을 추진해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가볍게 다루어진 시정부의 관광사업에 비중을 두고 이 시기 베이핑의 도시발전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의미가 있다.

3. 연구내용

본고는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청말부터 중화민국 초기까지 베이징의 도시관리와 공간구조의 변화, 특히 황실 園林의 개방을 통해 정치 자본으로서의 도시공간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유람구』가 수립된 경제적·정치적 배경과 그 과정을 통해 난징국민정부 시기 베이핑이 정치 중심에서 문화·관광 중심으로 변모하고 도시공간은 정치 자본에서 경제·문화 자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구도』의 수립부터 시행까지의 과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베이핑을 ‘민족·전통’ 문화의 중심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를 검토하고 경제·문화 자본인 동시에 정치 자본이 된 도시공간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도로, 배수시설, 그리고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해 관광사업이 베이핑 도시기반시설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베이핑의 교통, 숙박 시설, 관광업무전담기구 등 관광기반시설과 시정부의 관광마케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정부와 민간이 베이핑의 관광 진흥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30) 『北平市政府令社會局擬具市政初期建設計劃方案及實施步驟』(1933-1934), J002-007-00076.

北京市檔案館藏.

31) 『舊都文物整理委員會組織規程』(1934-1937), 『國民政府檔案』, 國史館藏, 001-012100-0 25.

국민정부는 1928년 6월에 난징을 수도로 확정하고 베이징을 베이핑 특별시로 개정하였다.³²⁾ 1930년 10월에 이르러 베이핑은 다시 河北省 소속의 지방 도시로 격하되었다. 수도의 지위를 상실한 충격은 베이핑의 불황을 심화시켰다. 베이징은 그동안 수도의 지위에 의존하여 소비도시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수도가 바뀌면서 베이징의 주요 소비층이던 고위직 관리와 부호들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³³⁾ 1928년 12월 기준 베이핑 시민의 구매력은 전년 대비 약 60% 감소하였고,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실직자가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의 약 30%에 육박했다.³⁴⁾

한편, 1928년부터 시행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리로 베이핑의 재정은 더 열악해졌다. 전체 재정수입의 약 70%가 세금인 상황에서, 양자의 재정이 분리된 후 조세수입의 대종이 중앙으로 회수되었다.³⁵⁾ 더 큰 문제는 재무행정이 통일되지 않아 公安局이 전체 조세수입의 50%를 독자적으로 징수하여 지출했기 때문에 시정부는 그 나머지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여 시정을 운영해야 했다.³⁶⁾ 따라서 시정부는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창출해 낼 도시발전 전략을 모색해야만 했다.

난징국민정부 초기에 집중된 베이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는 점차 관광 진흥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蔣介石과 군벌들 사이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베이핑 시장과 실무진은 빈번히 교체되었고 관광 진흥정책도 부침을 거듭하였다. 상황은 1933년에 행정원이 베이핑에 정무정리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달라졌다.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정치적으로 일원화되었고, 시정부는 그동안의 논의와 계획에 기초하여 『유람구』를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명승고적 보수계획은 보수대상·상세작업·소요 도구·추산비용 등의 항목으로 나뉜다. 보수 대상은 훼손 정도와 관광객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둘째, 도로·교통건설 계획은 시내와 교외를 구분하여 도로명, 시작과 끝 지점, 길이, 면적, 도로포장 재료, 미터 당 단가, 추산비용, 보수이유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명승고적 사이를 잇는 노선, 명승고적과 교통 요충지를 잇는 몇몇 구간은 ‘관광도로’로 지정하기로 했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공공 시티투어버스’를 개통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셋째, 시정부는 중남해 내 8백여 개의 방을 객실로 개조해 외관은 중국식이고 내부시설은 현대적인 관광객 숙박 시설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당시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도 대부분 외국인이 운영하는 北京飯店이나 六國飯店을 숙소로 선호하였으므로 이들과 전략적으로 차별화시킨다는 구상이었다.

넷째, 시정부는 중남해 부근에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을 건설할 계획도 갖고 있었다. 희곡의 내용을 영문으로 제공하여 중국 희곡의 정수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민중을 상대로 선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다섯째, 민관합동으로 운영될

32) 北京市地方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志：政務卷民政志』, 北京, 北京出版社, 2003, 534-536쪽.

33) 1928년 이후 베이핑의 시장경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許慧琦, 『故都新貌：遷都後到抗戰前的北平城市消費(1928~1937)』, 台北, 台灣學生書局, 2008을 참고.

34) 『平市經濟狀況之今昔觀』, 『新農報』, 1928.12.04, 6쪽; 林頌河, 『統計數字下的北平』, 『社會科學雜誌』 2(3), 1931, 404-405쪽.

35) 雋冬, 『平市財政制度之檢討』, 『市政評論』 2(2), 1934, 5쪽.

36) 『五年來本市歲入之分析』, 『北平市政府統計特刊』 2, 1934, 13쪽.

관광업무전담기구의 설립을 계획하였다. 이 기구는 가이드 북의 편집과 인쇄, 영상 촬영 등을 통한 대내외 선전뿐 아니라, 관광 가이드의 양성과 관리를 통한 외국인 여행객의 접대도 책임지기로 했다. 상술한 숙박 단지와 대극장의 건설과 경영도 이 기구에서 책임지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관광업무를 담당할 계획이었다.³⁷⁾

그런데 중앙정부가 베이핑의 관광 진흥을 추진한 이유는 처음부터 시정부와 차이가 있었다. 1928년에 내정부 부장 薛篤弼가 베이핑을 '동방 관광 중심'으로 건설하자고 건의한 것이나, 1930년에 국민당 원로 吳稚暉가 베이핑을 문화중심으로 건설하기 위한 指導整理北平市文化委員會의 조직을 제안한 것은 오랜 정치 중심이었던 베이핑의 정치색을 없애고 반대세력이 이 도시를 정치거점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³⁸⁾ 1934년, 장제스와 재정부 부장 孔祥熙 모두 『유람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한 것은 베이핑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고건축물을 이용하여 '민족'과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이것을 애국심으로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 일본의 군사적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제한된 시간과 경비를 정치적 목적의 달성에 집중하고자 『유람구』의 일부인 명승고적 보수와 도로건설공사만을 『구도』로 재편성하도록 한 것이다.³⁹⁾

『구도』로 재편성되는 과정에서 『유람구』의 계획은 다소간 변화가 있었다. 시정부는 명승고적을 보수하기 전에 도로를 먼저 보수해야 명승고적 공사 자재의 운송이 수월해져 공사 진도를 맞출 수 있고 경비도 절감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람구』의 건설 계획은 도로보수가 우선이었고, 명승고적 보수는 그다음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명승고적의 보수를 통한 정치적 선전효과가 "최단 시간 내에 실현되기를 희망"했으므로, 경비의 1/3만 도로보수에 사용하고 2/3는 명승고적 보수에 우선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다.⁴⁰⁾ 명승고적 보수 대상도 『유람구』에서는 관광객에게 노출이 많고 훼손 정도가 심하거나 수리범위가 큰 장소가 우선 선정되었으나, 湯山溫泉이나 西山風景林과 같은 명승은 베이핑을 '전통'문화 중심으로 형상화하는 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구도』의 보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반대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과 하등 관련이 없어 보이는 文丞相祠는 보수 대상에 추가되어 목숨을 바쳐 국가에 충성하는 정신을 전파하고 있었다.⁴¹⁾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중일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기 전까지 天壇, 先農壇, 明長陵, 頤和園, 碧雲寺 내의 부분적 건축물과 일부 牌樓, 角樓, 門樓 등은 체계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⁴²⁾ 처음 계획보다는 축소되었으나 명승고적이거나 교통 요충지 사이를 잇는 '관광도로'도 보수되어 시내의 景山東西北三大街, 地安門內大街, 南北長街,

37) 北平市政府 編, 『北平遊覽區建設計劃』, 北平市政府, 1934.

38) 「國民政府委員會第九十七次會議」, 『國民政府委員會會議記錄彙編(二)』, 台北, 國史館, 2000, p.473; 「用經濟方法維持北平文化」, 『大公報』1930.12.23, 3쪽.

39) 「舊都文物整理委員會組織規程」(1934-1937), 『國民政府檔案』, 國史館藏, 001-012100- 025.

40) 「舊都文物整理委員會組織規程」(1934-1937), 같은 글.

41) 北平市文物整理實施事務處 編, 『北平市文物整理實施事務處報告』, 北平市文物整理實施事務處鉛印本, 1936.

42) 北平市文物整理實施事務處 編, 『北平市文物整理實施事務處報告』, 같은 책.

外交部街 등 4구간과 西直門에서 靑龍橋까지나 永定門에서 大紅門까지의 교외 2구간 도로를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을 훨씬 쾌적하고 편안하게 해주었다.⁴³⁾ 또 시정부의 주도로 公共汽車管理處가 설립되어 1935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4개의 시영버스 노선이 개통되었다. 이허위안과 香山을 목적지로 하는 교외 노선은 그중 가장 먼저 개통된 노선이다.⁴⁴⁾ 관리처는 단체 관광객을 위해 11월부터 버스 대절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였다.⁴⁵⁾

『유람구』에 포함된 숙박 단지와 대형 극장의 건설, 그리고 관광업무전담기구의 설립은 경비 부족과 정국의 불안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시정부는 관광객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확충과 환경위생 정비에 힘을 쏟았다. 예를들어 도로보수 방면에서는 1933년도 1년간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 면적이 지난 3년간의 총면적보다 더 넓을 정도로 증가했으며, 비포장도로를 정비한 면적은 1933년도 이전보다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⁴⁶⁾ 환경위생 방면에서는 시정부 위생처(1934년 7월에 위생국으로 승격)와 北寧·平漢·平綏 철도국의 협조로 시내 쓰레기가 도시 밖으로 반출되어 고질적인 도로변 쓰레기 문제가 “반년도 안되어 근본적으로 해결되었고, 시민들은 기적이라고 놀라워했다.”⁴⁷⁾

중일전쟁의 발발로 『유람구』의 전면적 실시는 유보되었지만, 1947년에 발행된 『北平市都市計劃設計資料第一輯』에 의하면 중일전쟁이 끝난 후에도 베이핑의 도시건설강령에는 “유람구의 건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⁴⁸⁾ 요컨대 1928년부터 1937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관광 진흥은 줄곧 베이핑 도시발전전략의 핵심이었다. 시정부의 관광사업은 도시의 현대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에도 유의미한 기여를 하였다.

43) 北平市政府秘書處第一科統計股 編, 『北平市統計覽要』, 北平市政府秘書處第一科編纂股, 1936, 33쪽.
 44) 「公共汽車即正式開駛」, 『北平晨報』1935.08.19, 6쪽.
 45) 「公共汽車訂定遊覽專車價格」, 『京報』1935.11.07, 6쪽.
 46) 北平市政府秘書處第一科統計股 編, 『北平市統計覽要』, 앞의 책, 56쪽. 1933년도는 1933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간이다.
 47) 「市府組清潔委員會」, 『華北日報』1933.07.22, 6쪽; 譚炳訓, 「戰前北平市政之領導作風」, 『市政評論』10(5), 1948, 6쪽.
 48) 北平市工務局 編, 『北平市都市計劃設計資料第一輯』, 北平市工務局, 1947, 53-54쪽.

地域文化與文學之間的互動性：淪陷時期(1931-1945)東北作家研究

지역문화와 문학의 상호성：합락시기(1931-1945) 동북작가 연구

정겨울(북경대)

1931년 9.18 사변의 발발과 만주국의 성립으로 중국 동북 지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일본은 1932년 만주국 성립과 동시에 각종 식민 정책을 통해 동북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를 장악하였다. 이러한 기형적 환경 속에서 동북 출신의 작가들은 문학 작품 창작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타도와 민족 해방의 염원을 표출하였다. 특히, 당시 만주지역에 남아서 창작 활동을 지속한 동북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일본의 잔인한 식민통치와 민중의 고난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였고 이를 통하여 민족의 고통과 항일 의지를 고취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동북작가와 이들의 문학 작품은 당시 중국 관내(關內) 문단에서도 대표적인 항일문학 작품으로 여겨졌으며 루쉰(魯迅), 후평(胡風), 마오둔(茅盾) 등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이 지역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동북문학과 동북작가들은 친일문학/친일작가로 여겨졌고 오랜 시간 동안 외면되어왔다. 그러던 중, 1980년대 지역문화 연구의 활발한 전개를 계기로 문학 연구에도 새로운 연구 시각이 도입되었고 이는 합락시기 동북 지역의 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내에서 동북문학과 동북작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작품 속에 내재한 항일의식의 발굴과 민족주의적 시각에서의 해석이 주를 이루었고 이는 동북문학 및 작가 연구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후 관련 연구에서는 동북문학 속에 내재한 다양한 주제를 발견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었고, 특히 동북 지역의 독특한 문화 요소에 주목하며 동북작가의 문학 작품 속에서 이러한 문화적 특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동북문학 및 동북작가 연구에 있어서 항일문학이라는 일원적인 연구 시각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시각을 통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실제로 동북 지역은 중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청조(淸朝)의 봉쇄정책과 군벌의 통치로 인하여 동북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중원 지역의 문화와 일정한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사회, 경제, 정치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동북 지역의 문화 발전 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느렸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고립적 성격으로 인해 이 지역의 문화는 매우 선명한 지방색채를 드러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북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다. 이 지역은 넓은 토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고, 길고 혹독한 겨울이 지속되는 기후 특징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람의 생존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척박한 자연 환경을 극복해야했고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노동을 지속해야만 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동북 지역 사람들의 행동과 성격, 사고방식, 생활 습

관 등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이 지역 사람들은 자연스레 강하고 투박한 성격 특징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특징은 동북 작가의 작품 속 인물 형상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당시 동북 지역은 여전히 봉건제도와 전통 사상을 옹호하는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 지역 농촌 사회에서는 봉건적인 농노 관계가 지배적이었으며, 남권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적 관습으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핍박과 억압이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동북 지역의 비극과 맞물리며 도시와 농촌의 붕괴, 계급과 민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결국 동북 지역 사회 내부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당시 동북 지역은 조선, 소련(러시아) 등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동서양의 문물을 쉽게 받아들이고 접할 수 있었다. 특히 19세기 중후반 이후로는 제국열강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비록 강제적이었지만 다양한 외국 문물을 수용하였고, 만주국 성립 이후에는 이 지역에 중국인, 한인(韓人, 당시 만주에 거주하였던 조선 국적의 이민자를 지칭), 일본인 등 다양한 민족이 혼재하며 생활하게 된다. 이는 동북 지역의 문화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식민지와 피식민지 문화의 공존 속에서 독특한 지역적 특징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동북작가의 문학 작품이 그 지역 문화와 어떠한 상호 관계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분석,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본 논문은 그 연구 범위와 방법을 기존의 동북작가와 작품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밝힌다. 사실상 동북 작가와 관련한 대다수의 연구는 최근까지도 이들을 ‘동북유망작가(東北流亡作家)⁴⁹⁾와 ‘동북윤함구작가(東北淪陷區作家)⁵⁰⁾의 두 부류로 나누어 상호간의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문학 창작을 진행했던 동북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로 인해 중국현대문학사에서 동북 작가들은 여전히 공통적 특징을 지니는 단일의 그룹으로 인식되기 힘들었고, 이 과정에서 개별적 연구 대상이나 내용 역시 일부 작가에 집중되는 등 동북작가와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이 동북유망작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윤함구작가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역사적인 원인을 비롯하여 관련 문헌의 정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그 연구의 수량이나 내용이 전자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동북 지역의 문화 요소가 이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오히려 이들 사이의 존재하는 공통적 요소를 찾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은 동북이라는 동일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 요소가 작가의 문학 창작 속에 어떻게 반영되고 표출되고 있는지를

49) 일반적으로 만주국 성립 이후 이 지역을 떠나 관내로 이주하였던 동북 출신의 중국인 작가들을 지칭한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샤오홍(蕭紅), 샤오권(蕭軍), 단무홍량(端木蕻良) 등이 있다.

50) ‘동북유망작가’와 달리 만주국 성립 이후에도 줄곧 이 지역에 머무르며 창작 활동을 했던 중국인 작가들을 지칭한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량산딩(梁山丁), 왕추잉(王秋螢), 구딩(古丁)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지역문화와 문학 창작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상호성을 발견하는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고는 이와 같은 전제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함락시기 동북작가들의 문학 작품을 주요 텍스트로 삼고, ‘성별(여성)’, ‘토지’, ‘국가’, ‘민족’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동북작가들의 작품 속에 내재한 동북 지역 문화의 다양한 계층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시기 동북작가의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주제와 서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해당 지역 사회 문화와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성별(여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동북작가의 작품 속에 드러난 여성 서사의 특징을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 풍속 등이 동북 지역 사람들의 성격 및 사유방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 인물이 보여주는 특징을 발견한다. 이 외에도 봉건적이고 전통적인 사회 제도로 인한 여성들의 비극적 서사를 통해 동북작가들이 인식했던 동북 지역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발견한다. 특히 동북 출신의 여성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보여준 여성 서사에 주목하며 이들이 지니는 독특한 여성의식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재고한다.

제2장에서는 동북작가들이 ‘토지’라는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식의 내용과 함께 다양한 토지 이미지가 내포하는 상징성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토지와 동북 민중 사이에 형성된 강력한 감정적 유대 관계를 비롯해 토지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동북 지역 사회의 독특한 경제적, 계급적 관계에 대해 주목한다. 실제로 동북 지역 사람들은 토지를 삶과 생명의 근원으로 보았고 그들과 토지 사이에 형성된 혈연적, 정신적 유대 관계를 강조하였다. 반면에 토지와 관련한 각종 사회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토지의 상실의 국가와 민족의 해체 및 위기를 의미하는 등 ‘토지’는 동북작가의 작품 속에서 다양한 층위의 표상들로 재현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토지가 지니는 양면적 성격을 통해 동북 민중들의 토지에 대한 애착과 집착 속에서 형성된 문화심리의 특징을 발견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동북작가들의 사회 인식 및 작품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제3장에서는 ‘국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당시 동북작가들이 겪었던 심리적 방향과 모순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들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정을 작품 속에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분석한다. 당시 관내로 이주했던 대다수의 동북작가들은 타 지역 동포들이 동북 지역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과 냉소적인 태도에 상처받았으며, 동북 지역에 머무르며 창작을 지속했던 작가들 역시 문학 창작의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 ‘말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言與不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고향과 민족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으며 작품 창작을 통해 이러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었다. 특히 함락시기 동북 지역에서 전개된 ‘향토문학’은 ‘향토 색채의 표현’과 ‘현실 폭로’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강렬한 애향-애국의 정신을 드러내는 문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본 장에서는 동북작가

들의 문학 작품이 ‘향토정신’을 기본으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속에 드러나는 민족 정서와 애국정신의 내용이 지니는 특징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민족’을 중심으로 피점령시기 동북 문학 속에 존재하는 과(跨, trans-)문화 서사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본장에서는 당시 동북 지역에 형성되었던 ‘만주문학(滿洲文學)’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탄생과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문화적 특징에 주목한다. 비록 식민 배경 하에 전개된 ‘만주문학’의 건설은 서로 다른 민족 간의 신분적, 문화적 차이와 그 본연의 기형적인 사상으로 인해 한계성을 드러냈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는 일본-중국-조선 민족에게 있어 상호 교류와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場)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동북 지역의 중국인, 한인 작가의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되짚어보고, 중국-조선-일본의 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로 다른 ‘만주상상(滿洲想像)’의 내용과 만주문학이 지니는 한계점을 고찰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는 동북작가의 문학이 지니는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재발견과 함께 이에 대한 재해석을 진행하는데 있다. 동시에 함락시기 관내 및 동북 지역(만주국)에 거주하던 동북 출신 작가들의 문학 작품이 비록 서로 다른 공간과 환경을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비슷한 성장 배경과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문학 창작에 있어 일정한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고향의 모습과 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품 속에 재현하며 자연스레 동북 지역에 다양한 문화 요소와 독특한 문화 심리를 작품 속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동일한 지역 문화 배경이 동북작가들의 의식 형성과 문학 창작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사실상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대외적 개방 등으로 인해 동북작가와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고, 일부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현재까지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앞으로의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달리 다양한 시각에서 동북작가와 문학 텍스트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함락시기 동북 문학 연구는 약 반세기 동안 중국 내에서 친일문학의 잔류로 여겨졌고, 이후에도 ‘저항’ 혹은 ‘협력’이라는 이원적인 연구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문학 작품 및 작가들의 활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배후에 존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해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함락시기 중국 동북지역은 전쟁과 식민지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중국현대문학사를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문학사, 나아가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탐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탐구와 연구 범위의 확대 역시 기대되는 바이다.

目 次

緒 論

第一節 提出問題與若幹思考

第二節 研究綜述

第三節 研究範圍, 角度與意義

第一章 女性書寫中的文化含義

第一節 “力之美”：地域文化與東北女性的性格特點

第二節 “奴隸的奴隸”：雙重壓抑下的東北女性悲劇

第三節 “體驗”與“身體寓言”：東北女性作家的文學創作

第二章 土地意象的多重性

第一節 “地之子”：東北作家的土地情結

第二節 “黑土地的頌歌”：土地與東北人民的情感聯系

第三節 “黑土地的悲歌”：關於土地的理性關照

第三章 鄉土書寫與家國情懷

第一節 “亡國奴”：東北作家的身份認同和矛盾

第二節 “鄉土”與“國家”：東北作家的鄉土書寫

第三節 “神秘”與“復仇”：東北地域文化與抗戰文學

第四章 東北淪陷時期文學中的跨文化書寫

第一節 “同情”與“支持”：東北作家對朝鮮及朝鮮人的書寫

第二節 “合作”與“對立”：在滿朝鮮作家對中國及中國人的認識

第三節 “同床異夢”：中朝日文人的“滿洲文化想象”

結語

參考文獻

4~6세기 加耶 諸國의 동향과 국제관계

신가영 (연세대)

<목차>

1. 연구주제와 문제의식
2. 박사논문 목차
3. 주요 내용

1. 연구주제와 문제의식

가야는 조선 후기부터 실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가야의 연원과 가야 소국들의 위치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졌고, ‘변한=가야’ 인식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구는 순조롭게 이어지지 못한채 일제강점기에 ‘任那日本府’설로 대표되는 식민사관에 의해 가야의 역사상이 크게 왜곡되었다. 고대 일본(倭)에 있어서 가야는 한반도 진출의 거점이며 부수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해방 이후의 가야사 연구는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주체적인 가야사의 복원’에 목표를 두고 진행하였다.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가야의 대외관계를 논의하였고, ‘국가’로서 가야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더불어 한국 고대 사회의 국가발전 단계를 논증하는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가야를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國名’으로 파악하는 것은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 ‘가야’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정치체들이 제각기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加耶(伽耶)’, ‘任那’ 등 하나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학계는 이들을 통합되지는 못한 정치체들로 인식하였다. 즉 다수의 정치체가 ‘분립’된 상태로 존재하며 하나의 권력으로 통합되지 못했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달리 ‘미성숙한’ 사회(국가)발전단계에 머물렀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야연맹체’라는 개념이 제기되었고, 나아가 금관가야와 대가야를 중심으로 각각 전·후기의 ‘가야연맹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파악되었다.

‘연맹’은 고대 사회의 발전단계가 설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고대 사회가 ‘소국’에서 과도기 단계인 ‘연맹’을 거쳐 ‘중앙집권화’된 ‘고대국가’로 발달했다는 사회발전단계론이 제시되었는데, ‘연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가야 諸國을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가야사 연구에서는 ‘연맹체’의 여부가 주요 연구 쟁점이 되었는데, ‘연맹’이란 개념을 둘러싸고 가야 제국의 발전단계 또는 정치형태 및 구조라는 두 갈래의 틀 안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 김해, 고령, 남원, 함안, 합천, 고성지역 등에서 가야 유적이 발굴되었고, 이와 함께 『일본서기』가 적극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가야 각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맹주국’ 중심의 가야사에서 벗어나 가야 각국에 대

한 다양한 양상이 규명되었지만, 가야 제국이 ‘네트워크’⁵¹⁾를 구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가야의 여러 정치체가 ‘단일연맹체’를 구축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으나, 시기별로 유력한 특정국이 가야 제국을 ‘대표’하여 주도하였고 가야 제국은 주변 정세에 영향을 받아 이합집산의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단일연맹체설에서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체가 성립되었다가 400년 고구려군의 南征으로 인하여 ‘동서’로 분열되고, 이후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체가 성립되었지만 다시 ‘남북’으로 분열되었다고 파악한다. 단일연맹체설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금관가야가 ‘전기가야’의 구심이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5세기 후반 이후 대가야 중심의 통합 운동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유력한 정치체였던 아라가야를 주목하는 연구에서는 아라가야가 6세기 전반 가야 제국의 대외관계를 주도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특정국 중심의 가야 제국에 대한 이해는 대외관계의 설명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그런 대외관계가 가야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한다.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는 다른 가야 정치체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 가야 제국을 대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4세기까지는 금관가야가, 5~6세기에는 대가야와 아라가야가 가야 제국의 구심이 되었고, 가야 제국은 하나의 정치체처럼 주변 제국에 공동 대응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가야 제국은 백제, 신라와 일률적·단선적으로 우호를 맺거나 대립하였는데, 대체로 신라와는 대립 관계로, 백제와는 우호관계 혹은 종속관계였고 상황에 따라 신라와 백제 사이를 오가는 대응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대가야와 아라가야의 독자적 교섭을 주목하면서도 교섭 활동의 결과는 가야 제국에 동일하게 미쳤던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 방식으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사료 속에 개별적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가야 정치체의 모습과 그들이 지닌 독립성을 도외시하는 모순이 생겼다고 생각된다. 유력한 특정국이 가야 제국 내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을 논하면서도, 어떻게 가야 제국을 ‘대표’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 여타 가야 제국과 어떤 관계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지는 못한 채 ‘맹주국’을 선형적으로 전제하였다. 그 결과 가야 각국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대외관계에서는 유력한 대국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외교 대응을 전개함으로써 주변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외교적 태도를 견지한다고 설명하게 된 것이다.

‘가야’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가야 제국을 ‘운명공동체’처럼 간주해 왔지만, 오늘날 우리가 일컫는 바와 같이 여러 나라를 함께 아울러 부르는 ‘가야’가 당시에 사용되고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또 가야라고 불렸던 정치체들은 그 수가 적지 않기에 각국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는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51) 대체로 ‘연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지만, 당시 소국들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에서 제시했던 ‘연맹’ 관점에서 벗어나 가야 각국의 독자적 이해관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국제정세에 따라 가야 제국이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가 다양했을 것이므로 각국의 대외관계는 단일하고 일원적인 것이 아닌 한층 다원적이고 입체적 교섭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야의 여러 나라들을 마치 하나의 ‘운명공동체’처럼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가야 제국의 다양한 진로 모색 과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대국가’로 진전되지 못했다고 저평가하는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고구려, 백제, 신라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존립할 수 있었던 가야 제국의 역동적인 모습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박사논문 목차

I. 서론

II. 금관가야의 약화와 가야 諸國의 변동

1. 금관가야와 가야 諸國

- 1) 철 집산지, 거점 기항지로서의 입지
- 2) 금관가야와 주변 諸國의 관계

2. 신라의 진출과 금관가야의 세력 약화

- 1) 신라의 낙동강 하류 진출
- 2) 400년 고구려군의 南征과 ‘安羅人戍兵’
- 3) 세력 약화 이후의 금관가야

III. 대가야 세력권의 확대와 가야 諸國

1. 대가야와 가야 諸國

- 1) 섬진강 유역 진출과 ‘縣’
- 2) 아라가야 및 주변 諸國과의 관계
- 3) 신라, 백제와의 관계

2. 대가야 세력권의 확대와 그 한계

- 1) 南齊 교섭과 ‘本國王’
- 2) 우륵 12곡의 관념과 실상

IV. 가야 諸國의 소멸과 백제, 신라

1. 신라·백제의 진출과 가야 諸國의 대응

- 1) 신라의 가야 諸國 압박과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
- 2) 대가야와 아라가야의 독자적 대외 교섭
- 3) 사비회의와 가야 諸國의 대응

2. 가야 諸國의 대외 교섭과 소멸 과정

- 1) 사비회의 이후 가야 제국과 신라·백제 관계
- 2) 가야의 관산성 전투 참여
- 3) 신라의 가야 복속과 가야의 소멸

V. 결론

3.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남부 지역 정치체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가야라고 불렸던 정치체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시기별 이합집산 과정을 복원해 보고자 하였다. 국제정세에 따라 가야 각국이 자신의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주변 세력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맹’ 관점에서 벗어나 주요국인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가 신라, 백제, 고구려, 왜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펼친 대외 교섭은 상호 어떻게 달랐는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가야 각국의 독자적 이해관계를 주목하였고 가야 諸國이 하나의 정치체로 통합되지 않았던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금관가야는 철의 집산지와 거점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통해 이른 시기에 발전할 수 있었지만,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단일한 네트워크가 구축된 것은 아니었다. 4세기 초 고구려에 의해 낙랑·대방군이 축출된 이후에는 고구려와 신라를 중심으로 전개된 새로운 교역체계 속에서 금관가야는 점차 뒤처지게 되었다. 결국 4세기 후반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의 교역권을 둘러싼 신라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었다.

가야사에 가장 큰 외부 충격으로서 400년 고구려군의 南征이 주목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금관가야에 한해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파악된다. 광개토왕비문의 ‘安羅人戍兵’ 관련 기사는 아라가야와 관련짓기는 어렵다. 아라가야를 비롯한 가야 제국은 전쟁의 영향권 밖에 놓여 있었다. 비문에서 가야가 다른 세력보다 소홀하게 기술된 것은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 목적과도 관련이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은 고구려의 한반도 남부 진출과 가야 세력의 변동으로 이해하였지만, 실상은 ‘安羅人戍兵’, 즉 ‘신라인수비병의 배치’가 세 번이나 강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가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한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기에 비문에서 가야에 대한 전쟁의 명분이 직접 기술되지 않았고, 전쟁 과정 중에 짧게 언급되었던 것이다.

즉 400년 고구려군의 南征은 신라의 낙동강 유역 진출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이미 가야 諸國은 400년 이전부터 변화하고 있었다. 그 변화의 배경은 낙동강 하구로 진출하려는 신라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쇠퇴해 가는 금관가야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400년 이후 고구려를 등에 업은 신라가 낙동강 하구 교역권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였기에 가야 각국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금관가야의 세력 약화 이후 가야 諸國의 동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 먼저 신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라가 주도하는 낙동강 하구 교역권에 편입되는 것이었다. 또는 신라와 전면적으로 대립하지 않으면서 왜와 독자적으로 교섭하거나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자 했던 것이다. 가야 각국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신라, 백제와 관계를 구축하면서 존립을 추구했던 만큼 가야 諸國 간에는 통

합의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웠다.

물론 대가야의 경우처럼 독자적으로 섬진강 유역으로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대가야가 ‘고대국가’로 진전되었는지의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지만, 대가야양식 토기와 묘제의 확산 과정과 ‘縣’ 관련 기사를 통해 대가야가 지역에 따라 지배방식의 차이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多羅와 己汶과 같이 느슨한 복속관계였던 지역이 있었던 반면, ‘縣’이라고 기록될 만큼 중앙의 지배력이 미쳤던 지역도 있었다.

그러나 대가야가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이나 백제와 己汶·帶沙 지역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아라가야를 비롯한 가야 소국들은 대가야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또한 대가야가 아라가야를 비롯한 가야 諸國을 직접 병합하지 못하고 그 반대편인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대가야와 가야 諸國 간의 세력 구도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대가야는 가야 諸國 중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했지만, 금관가야·아라가야·소가야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구심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대가야와 아라가야는 서로 경쟁하였던 관계로 각각 대외 교섭을 추진했다. 또 중국 南齊로부터 책봉 받은 ‘輔國將軍 本國王’과 우륵의 12곡명을 통해 대가야 내부의 발전된 양상을 유추할 수 있으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단일한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6세기 이전까지 백제와 신라 어느 나라도 압도적 군사력으로 가야 諸國을 소멸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가야 諸國은 서로 힘을 합쳐 백제와 신라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가야 諸國은 각자의 방식대로 백제와 신라의 세력 균형 속에 기민하게 국제정세를 관망하며 나름의 진로를 모색했다. 그런데 고구려가 백제 한성을 함락한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은 심화되었다. 6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야 諸國은 백제와 신라의 적극적 공세에 직면하였다. 가야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백제는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대가야 세력권의 일부를 차지하였고, 신라는 낙동강 서쪽 지역으로 진출하여 금관가야, 탁기탄, 탁순을 소멸시켰다. 이후 백제 왕도인 사비에서 신라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지만, 백제의 제안은 실망스러웠고 오히려 가야 諸國은 신라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가야 諸國은 554년 관산성 전투를 거치면서 백제와 신라의 세력 균형이 붕괴되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고, 가야 지역 진출에서도 백제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신라는 주변 세력에 대해 군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위세품을 수여하는 등의 회유책도 실시했다. 특히 신라에 항복한 금관가야의 사례는 다른 가야 세력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백제는 가야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었고, 가야 諸國은 서로 힘을 합쳐 외부의 적을 대응해 본 역사적 경험이 부족했다. 결국 가야 諸國은 백제가 아닌 신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가야 諸國은 신라의 압박·회유책에 의해 신라에 점차 통합되어 갔고 결국 대가야를 제외하고는 변변한 저항을 해보지도 못한 채 소멸하였다. 가야 諸國에 있어서 대외관계는 하나의 생존전략이 되었다. 가야 諸國은 백제와 신라

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독자 세력으로 서 존립하였다.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연결해 주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대외 교섭력을 발휘하였고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왜와의 상호 관계를 통해 가야 각국은 성장해 나갔다. 이런 대외 교섭력이 백제와 신라가 가야 諸國을 쉽사리 공략할 수 없는 저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남부에 치우친 지역에 있다는 점은 가야 諸國 발전의 저해가 되기도 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한반도 중북부에 있었던 漢 군현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 주변 세력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방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한편, 주변 세력과 느슨한 연대를 맺었던 신라 역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반면 가야 諸國은 5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400년 고구려 南征을 제외하고는 國運을 결정할 만한 거대한 전쟁을 수행해본 적이 없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이 부재한 가운데, 6세기 전반 치열해져 가는 삼국의 각축전을 가야 諸國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다. 6세기 이전 가야의 여러 소국들은 어떤 방식이든 힘을 합치는 과정을 가져본 역사적 경험이 적었고, 압도적 주도권을 쥔 나라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외활동을 하였다. 백제와 신라의 세력 균형이 붕괴되면서 가야 諸國은 결국 신라에 의해 차례로 소멸하였다.

이처럼 ‘연맹’이나 ‘연합’ 방식이 아니더라도 가야 각국의 역량대로 진로를 모색하여 수백 년 간 존립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국 형태였다고 ‘고대 국가’가 아니라고 평가하거나 ‘집권’이 사회(국가)발전의 종착점으로 파악하는 연구 경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또 다원적인 가야 諸國의 동향은 고대 정치체가 ‘중앙’으로 집권화된 체제를 갖추어가는 과정으로 전개됐다는 일관된 이해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대 국가의 진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5~6世紀 百濟와 新羅의 ‘軍事協力體制’ 研究』

(2018,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위가야(성균관대)

1. 연구의 문제의식과 목적

본 연구는 5~6세기 百濟와 新羅의 관계가 전개된 양상을 ‘군사협력체제’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시기 백제와 신라의 관계를 ‘동맹’의 관점에서 정리하였으나, 각자의 실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했던 5~6세기 백제와 신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용어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군사협력’이란 양국의 공동 군사행동뿐만 아니라 상호불가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상호불가침을 낮은 단계의(느슨한) 군사협력, 공동 군사행동을 높은 단계의(긴밀한) 군사협력으로 정의하였다. 5~6세기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를 상대로 공동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은 높은 단계의 군사협력이, 양국의 실리가 충돌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적대하며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은 것은 낮은 단계의 군사협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개념 설정을 바탕으로 백제·신라 관계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2. ‘군사협력 체제’의 성립

433년, 백제가 신라에 和親을 요청함으로써 양국 사이에 ‘군사협력체제’가 성립하였다. 다만 신라가 高句麗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었으므로 낮은 단계의 군사협력이 이루어졌다. 455년, 백제가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 신라가 원군을 파견함으로써 높은 단계의 군사협력이 이루어졌다. 이후 백제와 신라의 군사협력은 주로 고구려의 침입에 대한 공동방어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백제의 對고구려 공세를 신라가 보조하는 전략도 운용되었음을 470~474년, 신라가 백제의 외곽지역에 축성하여 고구려의 군사거점인 충주(國原)를 견제한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제가 신라가 고구려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실리가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군사협력 체제’의 운영과 추이

475년에 고구려의 공격으로 백제의 수도 한성이 함락되는 일도 있었지만, 481년에는 백제·加耶·신라 연합군이 고구려군의 신라 침공을 저지하였고, 이후로도 고구려의 침입을 방어하는 등, 5세기말 백제와 신라는 군사협력을 통해 고구려의 남진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다. 그 결과 전선은 진천-증평-괴산 선에서 고착되었다. 전선이 고착되자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의 군사협력을 와해시키기 위한 이간책을 구사하였다. 신라는 이러한 고구려의 전략에 편승해 이중실리외교를 구사하여 국가의 내실을 강화하려 하였고, 백제가 이러한 신라의 태도를 경계함으로써 양국의 군사협력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백제는 武寧王 초기에 추진한 고구려와의 공방전이 소강상태에 이르자 균열의 봉합을 시도하였다. 백제는 신라의 골칫거리였던 왜의 변경 침입 문제를 해결하고 양과의 교섭을 중개함으로써 균열을 봉합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높은 단계의 군사협력을 재개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4. 백제와 신라의 경쟁적 가야지역 진출과 ‘국제회의’

6세기 초 백제의 대외전략이 고구려 공격에서 가야지역 진출로 변화하였다. 백제는 己汶(남원)과 帶沙(하동)에 진출하였는데 목적은 섬진강 교통로의 통제권을 장악하여 大加耶(伴跋·加羅: 고령)의 가야 제국에 대한 장악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대가야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백제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 사이의 분쟁을 국제무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가야의 의도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백제 또한 국제회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고 그 결과 섬진강 교통로 장악에 성공할 수 있었다.

대가야는 백제의 가야지역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신라와 通婚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한 양국의 ‘結黨’은 오래가지 못했다. 524년, 신라는 喙己吞國(영산)을 공격하는 것으로 가야지역 진출을 시작하였고, 이에 반발한 卓淳國(창원)이 신라의 침공을 막기 위해 왜를 끌어들이어 熊川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530년, 백제와 신라가 공모하여 탁순국을 공격하자 安羅(함안)가 이에 반발하여 안라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국제회의의 결과는 탁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이로 인해 실리에 따라 우호와 갈등이 번갈아 나타나는 백제와 신라의 관계를 이용한 가야의 자구책이었던 국제회의는 한반도 남부에서 분쟁의 해결방식으로서 효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541년, 신라가 탁순국을 병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열린 사비국제회의에서는 백제와 가야 제국이 회의에 참여한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안라와 任那日本府의 고구려 통모가 실패하여 백제의

對가야 영향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5. '군사협력체제'의 종말

548년, 獨山城 전투에서 백제와 신라의 공동 방어작전이 수행됨으로써 양국의 군사 협력이 다시 긴밀해졌다. 그 결과 551년, 백제는 신라·가야의 군대와 함께 한강유역을 공격하여 失地를 수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라가 고구려와 '密約'을 맺고 한강유역을 침탈하였다. 백제는 이 시점에서 신라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포기했다. 백제는 기만책을 구사해 신라를 방심시킨 후 기습하여 신라를 제압하려는 계획을 진행시켰으나 554년, 管山城 전투에서 聖王이 전사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백제와 신라의 군사협력은 이렇게 파탄을 맞았다. 433년부터 120여 년간 이어져 온 '군사협력체제'의 종말이었다.

百濟 姓氏의 歷史的 展開와 大姓八族

오택현(동국대학교)

1. 본 연구의 목적

삼국시대의 姓氏는 왕실 및 귀족의 전유물로서, 고대국가 지배층의 정체성(identity)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체계이다. 그러므로 姓氏는 고대사회의 구조 및 정치구조를 해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고대 동아시아 각국은 모두 姓氏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마다 稱姓의 양상과 姓氏集團의 존재 양태는 조금씩 차이가 보인다. 이는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 각국의 상황에 따라 변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고대사회의 姓氏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姓氏 사용 방법을 참고하되, 각국의 姓氏 사용 이유와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百濟 姓氏의 양상과 그 歷史的 전개 과정 역시 고대 동아시아 각국의 그것들과 공통적 기반을 가지지만, 차이점도 많아 그 독특함에 있어 크게 주목된다. 百濟 姓氏의 독특함을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다.

우선 百濟에서는 주변의 高句麗, 新羅와 달리 王姓 외에도 최고 귀족층의 姓氏들이 매우 많이 확인된다. 高句麗와 新羅의 경우, 王姓인 高씨와 金씨가 최고 귀족층의 대부분을 구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국의 최고 귀족층은 王姓과 같은 姓氏를 가지고 있다. 반면 百濟의 경우에는 『隋書』에 特筆된 ‘大姓八族’이 잘 대변하고 있다시피, 泗泚期 최고 귀족층의 구성에 있어 王姓인 扶餘氏보다 ‘大姓八族’의 활동이 더 많이 확인되고 있다. 두 번째로 百濟에서는 지배층의 姓氏가 高句麗, 新羅와 달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이하게 ‘複姓’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姓氏가 매우 많다. 마지막으로 百濟에서는 다양한 姓氏가 확인되고 있지만, 귀족에 대한 賜姓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百濟의 姓氏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은 이웃한 高句麗, 新羅보다 7세기 말 이후 古代 日本의 그것과 더욱 흡사한 면을 띤다.

百濟의 大姓八族과 다양한 複姓에 대해서는 이미 전통시대의 史家들도 주목하고 있었다. 『三國史記』의 撰者는 百濟 史料를 정리하면서 百濟 姓氏의 이러한 양상에 특별히 주의하였다.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사로 漢城 百濟가 高句麗 長壽王의 침공으로 인해 風前燈火의 위기를 맞았을 때 文周와 함께 新羅에 援軍을 청하려 갔던 인물인 ‘木菴滿致’와 ‘祖彌桀取’에 대해 “木菴과 祖彌는 모두 複姓이다. 『隋書』에서 木菴을 두 개의 姓으로 하였으나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라고 夾註를 붙인 것을 들 수 있다.⁵²⁾ 즉 『三國史記』 撰者는 『隋書』에 나오는 ‘大姓八族’ 중에 木씨와

52)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蓋鹵王 21年, “文周乃與木菴滿致祖彌桀取【木菴祖彌皆複姓.隋書以木菴爲二姓.未知孰是】南行焉.”

菴씨가 별도의 姓氏로 되어 있는 자료와 複姓으로 나오는 이 木菴씨 자료에 대해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더 이상의 답을 내놓지 않고 의문으로 남겨두었다. 이를 통해 『三國史記』 撰者가 ‘大姓八族’이라는 百濟 지배층의 특이한 구성과 다양한 複姓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三國史記』 撰者의 이러한 언급과 인식은 朝鮮 후기 史家들의 百濟 姓氏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유발하였다. 대표적으로 朝鮮時代 실학자인 李德懋가 저술한 『靑莊館全書』나,⁵³⁾ 韓致淵의 『海東繹史』를 들 수 있다. 나아가 李德懋의 손자인 李圭景도 家業을 발전시켜 百濟 姓氏를 연구하였다.

먼저 李德懋는 百濟 大姓八族에 대해 『北史』와 『萬姓統譜』, 『韻會』를 근거로 논증하였는데, 그의 附記에 흥미로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北史』에 의거하여 大姓八族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萬姓統譜』의 내용을 통해 그 중 ‘菴’이라는 한자가 올바른 것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菴이 아니라 ‘菴(音은 黎)’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 ㅁ씨의 표기 방식도 『北史』 『萬姓統譜』 『韻會』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⁵⁴⁾ 그의 인식은 손자 李圭景에게 전해져 더욱 精緻해졌다.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도 百濟 大姓八族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⁵⁵⁾ 百濟의 大姓八族이 『北史』에 인용되었다고 하는 점은 『靑莊館全書』와 같지만, 좀 더 고증을 진행하여 잘못된 기록을 바로 잡았다. 『靑莊館全書』는 『北史』에 의거하여 百濟의 大姓八族을 “沙氏, 燕氏, 菴氏, 眞氏, 解氏, 骨氏, 木氏, 菴氏”로 기록했지만 『五洲衍文長箋散稿』는 『北史』 외에 다른 사서들을 참조하여 大姓八族이 “沙氏·燕氏·菴氏·眞氏·解氏·國氏·木氏·菴氏”라는 정확한 실증적 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韓致淵은 『海東繹史』 官氏志 氏族條에서 한국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 자료까지 망라하여 우리나라의 姓氏를 정리하였다. 百濟의 姓氏로는 王姓인 扶餘씨와 大姓八族 외에, ‘黑齒’씨와 ‘沙吒’씨 등 중국 자료에 나타나는 百濟의 複姓을 추가하였고, 또 『急就篇姓氏注』를 전거로 하여 ‘難’씨도 百濟人의 姓氏로 파악하였다.⁵⁶⁾ 최근 중국에서 百濟 遺民인 ‘難元慶’의 墓誌銘이 발견되었는데, 『海東繹史』의 정리가 정확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⁵⁷⁾

53) 李德懋(1741~1793)의 아들 李光葵가 아버지인 李德懋의 저술을 모두 모아 『靑莊館全書』로 편집하였고, 李琬秀가 교열하였다.

54) 『靑莊館全書』 卷之五十七 叢葉記 四 羅勾濟麗奇姓, “沙氏, 燕氏, 菴氏, 眞氏, 解氏, 骨氏, 木氏, 菴氏. 【『北史』 百濟大姓八族. 沙燕菴眞解骨木菴. 『萬姓統譜』 上谷百濟八姓. 其一曰. 眞漢, 眞祐. 太尉長史. 眞欽太醫令. 眞玄菟善算. ○案菴『北史』. 以三力作菴. 音協. 『萬姓統譜』 以三刁作. 音黎. 未知孰是. 然考字書. 有三刀之菴. 無三刁之. 三刀者. 音黎. 則恐譌爲三刁. 菴音. 『北史』 ++下曰. 菴作. 『萬姓統譜』 以++下曰. 菴作. 菴音舊. 菴音白. 『韻會』曰. 百濟有菴氏. 則當從++下白.】”

55)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1/人事類2 姓氏譜牒辨證說, “百濟則大姓八族.【『北史』 百濟大姓八族. 沙·燕·菴·眞·解·國·木·菴. 『萬姓統譜』上卷. 百濟八姓. 其一曰. 眞漢, 眞祐. 太尉長史. 眞欽. 太醫令. 眞玄菟. 善算.】.”

그런데 실제 『北史』 卷94 列傳 百濟에는 ‘菴’이 ‘苗’로 되어 있어 옮겨 적을 때 착오가 있었거나 자신의 안에 따라 교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56) 『海東繹史』 卷31 官氏志2 氏族, “難氏 百濟人【急就篇姓氏注】黑齒氏...【通志氏族略】沙吒氏...【資治通鑑注】”

『靑莊館全書』, 『五洲衍文長箋散稿』, 그리고 『海東繹史』 등에 정리된 百濟의 大姓 八族과 黑齒, 沙吒 등의 複姓, 그리고 難씨 등에 대한 논의는 이미 18~19세기 朝鮮의 實學者들이 百濟 姓氏制度의 독특함과 복잡한 양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때부터 百濟의 大姓八族 및 다양한 姓氏, 複姓의 양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高句麗, 新羅와 달리 百濟에서만 유독 최고 귀족층이 ‘大姓八族’과 같은 다양한 姓氏 집단들로 구성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百濟 姓氏의 또 다른 특징은 최고 귀족층 외에도 귀족층 전반이 姓氏를 사용하여 그 숫자가 매우 많다는 점도 高句麗와 新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특히 그러한 姓氏가 高句麗와 新羅에서 흔히 않은 ‘複姓’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百濟의 姓氏制度 양상이 이웃한 高句麗, 新羅와 다르게 전개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본고는 百濟 姓氏의 歷史的 展開를 검토하면서, 이러한 의문점을 밝히고자 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百濟 귀족층의 다양한 ‘複姓’사용 양상이나 ‘大姓八族’의 성립 등은 당시 百濟의 정치체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자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百濟 지배층의 구성과 존재 양태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기대된다.

2. 본 논문의 요약

高句麗·百濟·新羅 3國은 다양한 방식으로 姓氏를 취득하고 사용했다. 그중 대표적인 姓氏취득 방법은 賜姓이다. 賜姓은 큰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국가가 姓氏를 내려주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姓氏를 취득해 사용하는 姓氏 집단이 탄생한다. 그러나 자료적인 한계 때문인지 百濟에서는 賜姓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百濟에서 다양한 姓氏 집단이 확인된다.

大姓八族을 비롯하여 다양한 姓氏 집단을 통해 百濟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姓氏 집단의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그에 따라 고구려·부여에서 백제로 넘어온 姓氏 집단, 후대 大姓八族으로 성장하는 姓氏 집단, 중국에서 百濟로 넘어온 流移民 姓氏 집단, 기타 姓氏집단으로 나눠 분류하였다.

그 후, 百濟 姓氏의 등장과 王姓에 대해 살펴보았다. 『三國史記』 高句麗條에 보이는 姓氏 집단이 百濟에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 高句麗에서 百濟로 남하해 온 집단으로 상정해 정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高, 解, 乙, 優 등의 姓氏는 高句麗에서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高句麗에서 百濟로 이주한 집단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후대 大姓八族으로 정립되는 姓氏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眞씨, 沙씨, 木씨가 주목되는데, 이들은 모두 국가의 위기 상태에서 등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넘

57) 『急就篇』은 急就章이라고도 하며, 漢의 史游가 撰하였다. 여기에는 姓字 및 萬物의 이름을 열거하고 해석했다. 『海東繹史』에서는 이 책과 관련해 北齊 및 隋에서 활동한 顏之推(顏師古의 祖父)의 『急就篇注』와 宋代의 王應麟의 『急就篇姓氏注』가 인용되고 있다. 그런데 『急就篇』에는 難씨가 없고 『姓氏急就篇』 卷上에는 難씨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韓致堯이 보았던 『急就篇姓氏注』는 『姓氏急就篇』으로 이해되고 있다(이문기, 2000 「百濟 遺民 難元慶 墓誌의 紹介」 『慶北史學』23, pp.493~495).

어온 流移民 姓氏 집단은 낙랑·대방군의 몰락과 함께 百濟로 들어온 식자층으로 외교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百濟는 中國에서 八王의 亂, 永嘉의 亂이 발생하고 한반도에서 樂浪·帶方郡이 붕괴되자 스스로 대외교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때 中國에서 百濟로 넘어온 인물들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 과정에서 百濟 王室은 대외교류를 위해 姓氏를 사용하게 되고, 中國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사용하던 複姓이라는 방식을 차용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百濟 王室이 複姓의 姓氏를 사용한 것처럼 스스로 姓氏를 칭하는 사례가 百濟 내에서 늘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姓氏 집단이 양산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한성기의 몰락과 함께 더욱 다양한 姓氏 집단이 百濟 사회에 등장하게 된다. 즉 百濟가 웅진에 도읍함에 따라 漢城에서 옮겨 온 세력, 웅진에 거주하던 세력이 함께 百濟 사회를 구성하게 되면서 姓氏 집단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웅진기 姓氏 집단은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 이익을 위해서 반란과 국왕 시해 등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가담한 인물 중 새롭게 등장한 姓氏 집단이 보인다는 점은 흥미롭다. 기존의 세력과 새로운 세력이 百濟 중앙을 차지하기 위해 견제를 하면서도 연합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웅진기에 처음으로 보이는 새로운 현상이다. 하지만 姓氏 집단은 하나의 성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란을 도모한 세력을 죽인 후에도 그 姓氏집단이 계속 확인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웅진기의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姓氏 집단이 등장한다. 蓋鹵王 詔書에 보이는 인물은 대부분이 扶餘씨인 반면, 동성왕 詔書에 보이는 인물은 후대 大姓八族이 되는 집단, 새로운 姓氏 집단, 중국에서 百濟로 넘어온 姓氏 집단 등이다. 따라서 당시 웅진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인물이 노력했고, 이를 인정해주고자 동성왕이 將軍號를 요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사비기에 들어 또다시 변화하게 된다. 聖王은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지를 옮기면서 왕권 강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그가 전사한 뒤 威德王이 즉위한다. 威德王은 귀족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산성 전투를 수행하다가 聖王의 전사라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불사 활동을 전개하며 南·北朝와의 교류를 모색한다. 즉 불사 활동과 대외교류를 통해 왕권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威德王의 왕권 강화 노력은 武王代에도 이어져 武王은 亂立해 있던 姓氏 집단의 안정을 위해 大姓八族을 탄생시켰다.

大姓八族은 『隋書』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이다. 중국 정사 조선전의 기록은 앞선 기록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추가 기입한다. 『隋書』도 이러한 편찬 방향에 맞춰 서술되었다. 따라서 『隋書』를 편찬할 당시 大姓八族이라는 용어는 당시 百濟 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정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百濟 王室에서 직접 中國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大姓八族은 『隋書』가 편찬된 636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600년에 초반에 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大姓八族은 大姓이 8개라는 의미이다. 게다가 8개의 大姓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

다. 이는 8개의 姓氏가 百濟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까지 『通典』에 기반하여 荔과 木을 木荔씨의 분화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라 大姓八族을 7개의 姓氏 집단으로 보았다. 하지만 700년에 작성된 『通典』을 기본자료로 보는 것과 複姓이 각각 분화된 사례가 없으므로 荔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大姓八族을 처음 기록한 『隋書』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北史』와 『翰苑』 荔이 아니라 荔가 기록되어 있다. 『隋書』 『北史』 『翰苑』은 636~660년에 작성된 사서로 『通典』보다 먼저 작성되었다. 그리고 당시 音借를 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간단한 글자인 荔를 姓氏로 기록했을 가능성을 상정하였다. 이에 中世 音韻을 통해 가능성 있는 姓氏를 살펴본 결과, 荔를 禰로 볼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 고대 음운에서는 첫 글자의 음은 ‘ㄹ’이 나올 수 없어 ‘ㄹ’이 ‘ㄴ’으로 발음된다. 이는 安羅와 阿那의 사례와 광개토태왕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li’와 ‘ni’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禰’를 大姓八族 중의 하나로 본다면 최근에 발견된 예군 묘지명에 나타난 기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大姓八族의 기록 순서상 荔는 3번째에 위치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大姓八族의 8姓氏를 파악하였다.

武王은 大姓八族을 인정하면서 국정 운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武王대에 나타나는 姓氏 사용 집단의 기록을 보면 70% 정도가 大姓八族이다. 이는 일본에서 八色姓을 제정할 때 율령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姓氏를 통해 귀족들을 통제하고, 그들은 우대해주는 사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었다. 즉 武王은 大姓八族을 우대해주면서 百濟 사회의 중앙에서 활동하게 했고, 이를 통해 亂立했던 姓氏를 안정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日本書紀』에 의하면 義慈王 즉위 2년에 國主母가 죽자 왕족 4명과 신하 40명을 日本으로 내쫓는다. 또 기록된 姓氏 집단을 살펴보면 大姓八族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武王代와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다. 이와 관련해 『周書』의 기록을 살펴보면 佐平 5명, 達率 30명이라고 한다. 그 수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恩率부터 숫자가 없다는 점으로 볼 때 佐平和 達率이 특권계층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義慈王은 王 庶子 41명에게 佐平을 준다. 즉 義慈王은 佐平을 받을 수 있는 특권 계층을 붕괴시켰다.

과거 한성기부터 百濟는 금동관모, 중국제 도자기, 환두대도와 같은 威勢品으로 사람들을 포섭했다. 그리고 이들은 姓氏 집단의 亂立과 함께 대두되면서 百濟 중앙으로 진출, 佐平和 達率을 가진 집단으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義慈王은 이러한 王-佐平-達率이라는 구조를 깨고 王이 세력의 중심에 서고자 했다. 이에 王-佐平-達率로 구성되던 공존구조는 깨어지고, 唐의 13만 대군, 新羅의 5만 대군이 百濟를 향해 공격함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멸망하게 된 것이다.

高句麗壁畫古墳의 墨書 研究

김근식(동국대학교)

현재까지 알려진 高句麗 壁畫古墳의 수는 127기로 추정된다.⁵⁸⁾ 127기라 하면 제법 많은 양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벽화가 그려지지 않은 고분의 수와 비교해봤을 때 그 양은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는 벽화고분이라는 묘제 자체가 고구려 내에서 매우 특별한 방식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벽화고분 중에서도 ‘墨書’가 있는 것은 전부 18기에 불과해 더욱 희귀하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목서는 피장자의 삶을 기록한 ‘墓誌’나 벽화의 내용을 설명한 ‘傍題’로 구성되며, 이 목서들은 고구려사 연구에서 귀중한 1차 사료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고구려 고분의 목서는 대부분 먹으로 쓴 墨書이지만, 간혹 붉은색으로 쓴 朱書나 회를 눌러 쓴 방식도 확인되고 있다.⁵⁹⁾ 현재까지 고구려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무덤 내 묘지나 방제는 후술하는 安岳3號墳(357년)의 朱.墨書지만, 앞으로의 발굴결과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무덤에 목서를 남기는 행위는 고구려에서 자생된 문화라고 보기 어렵다. 안악3호분 제작 무렵인 357년, 고구려의 중심묘제는 명백히 積石塚이었다.⁶⁰⁾ 문제는 당시 적석총 구조상 내부에 목서를 써놓을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당시 고구려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무덤 내에 목서나 문자를 남기지 않고, 무덤 밖에 墓碑를 세우는 것을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후술하는 고구려인이 확실한 牟頭婁의 무덤에는 墓誌 형식의 목서가 남아있으나, 그 시기가 5세기대로 다소 늦다.

고구려 벽화고분 발굴이 시작된 1910년대에는 무덤 내 목서보다는 화려한 벽화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다.⁶¹⁾ 목서에 대한 소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내용이 매우 단편적이었다.⁶²⁾ 이후 여러 논문과 도록에서도 고구려 벽화고분의 목서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제대로 된 분석은 행해지지 않았다.⁶³⁾ 실질적인 고구려 벽

58) 전호태는 최근 연구에서 그간 고구려 벽화고분의 수를 재차 정리하여 122기로 파악한 바 있으나.(전호태, 2016 『고구려 벽화고분』 서울, 돌베개.) 정경일의 최근 보고를 추가산정하면 127기인 것으로 확인된다.(정경일, 2017 「최근 북한경내에서 새롭게 조사된 고구려벽화무덤의 현황과 과제」 『고구려 벽화고분의 조사연구와 최신성과』 동북아역사재단.한성백제박물관 주최 학술대회.)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안악군 월지리의 벽화고분 2기와 남포시 용강군 은덕지구의 벽화고분 1기를 추가하면 총 130기이다.

59) 평정리1호분 墓書는 마감회벽을 한 다음 그것이 굳어지기 전에 막대기 같은 것으로 눌러 쓴 방식이다.(한인호, 1989 「평정리벽화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89-2, pp.17~19.)

60) 『三國志』魏書30 東夷傳 高句麗.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厚葬, 金銀財幣, 盡於送死, 積石爲封, 列種松柏.

61)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2, 朝鮮總督府.

62) 朝鮮總督府, 1917 『大正5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p.678; 關野貞, 1917 「平壤府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墳墓及繪畫」 『國華』327호; 關野貞, 1925 「順川郡北倉面の八角天井塚に就いて(述)」 『朝鮮と建築』4권 11호.

화고분의 목서연구가 촉발된 것은 1935년 牟頭婁塚에서, 목서된 墓誌가 발견된 것이 큰 계기가 되었다. 발견자 중 하나였던 池內宏은 모두루총의 묘주는 모두루이며, 800여 자의 묘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⁶⁴⁾ 이후 그는 집안 고구려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를 종합하여 『通溝』를 출간하였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모두루총의 묘지 사진 가운데 가장 상태가 양호하다.⁶⁵⁾ 게다가 모두루총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더불어, 묘지의 내용을 판독·제시하였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안악3호분이 발굴되었다.⁶⁶⁾ 안악3호분에는 화려한 벽화를 비롯하여 묘주의 정보를 알려주는 묘지, 각 벽화의 제목격인 名詞形 傍題가 확인되었다.⁶⁷⁾ 초기연구의 목적은 안악3호분 묘지 분석을 통해 묘주가 누구인가를 살피는 것이었으나, 점차 안악3호분 내 다른 목서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폭되어갔다.⁶⁸⁾ 이후 북한⁶⁹⁾·일본⁷⁰⁾·중국⁷¹⁾ 등 동아시아 각국에서 고구려고분벽화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도록이 출간되었고, 이는 무덤 내 목서 자료가 학계에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북한의 덕흥리벽화고분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⁷²⁾ 한동안 안악3호분 분석에만 치중되던 목서연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⁷³⁾ 이 시기 모두루총에 대한 연구도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앞선 두 무덤에 비

63) 朝鮮總督府, 1929 『高句麗時代之遺蹟』 圖版上·下卷(古蹟調査特別報告第五冊); 朝鮮古蹟硏究會, 1936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pp.6~44.

64) 池內宏, 1937 「高句麗人牟頭婁の墓と墨書の墓誌」 『書苑』1-8, 法書會.

65) 池內宏 梅原未治, 1938 『通溝』上, 日滿文化協會刊, pp.61~65.

66) 도유호, 1949 「안악에서 발견된 고구려고분」 『문화유물』 창간호: 「在朝鮮安岳發見的一些高句麗古墳」 『文物參考資料』1952-1, 文物출판사.

67) 전주농, 1959 「안악하무덤(3호분)에 대하여 그 발견 1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유산』 1959-5; 리여성, 1955 「대동강반 한식유적, 유물과 '악랑군치' 설치에 대하여」 『역사과학』 1955-5; 김용준, 1957 「안악 3호분(하무덤)의 연대와 그 주인공에 대하여」 『문화유산』 1957-3;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8 「안악 3호분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Ⅲ, 과학원출판사; 전주농, 1959 「안악하무덤에 대하여-그 발견 1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유산』 1959-5.

68) 전주농, 1963 「다시 한 번 안악의 왕릉을 논함」 『고고민속』 1963-2; 박윤원, 1963 「안악 제3호분은 고구려 미천왕릉이다」 『고고민속』 1963-2; 주영현, 1963 「안악 제3호분 무덤의 주인공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2; 고고학연구실, 1966 『미천왕무덤』; 宿白, 1952, 「朝鮮 安岳所 發見的 冬壽墓」 『文物參考資料』 1952-1. 楊泓, 1958, 「高句麗壁畫石墓」 『文物參考資料』 1958-4; 洪晴玉, 1959, 「關於冬壽墓的發現和研究」 『考古』 1959-1; 李進熙, 1956, 「黃海道 發現の高句麗 壁畫古墳」 『駿台史學』 6; 熊谷宣夫, 1958, 「冬壽墓(安岳第3号墳)の紹介」 『佛教芸術』 37; 岡崎敬, 1964, 「安岳 3號墳(冬壽墓)の研究」 『史淵』 93, 九州大; 蔡秉瑞, 1959, 「安岳地方壁畫古墳發掘手録」 『亞細亞研究』Ⅱ-2, 아시아연구2; 蔡秉瑞, 1967, 「安岳地方의 壁畫古墳」 『白山學報』 2, 백산학회; 金元龍, 1961, 「高句麗 古墳壁畫의 起源에 대한 研究」 『震檀學報』 21, 진단학회.

69)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文物保存指導局 寫真帳編輯室編, 1979 『高句麗壁畫』 平壤;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고구려편.

70) 高句麗文化展實行委員會, 1985 『高句麗文化展: 麗しの古代美』 東京: 朝鮮畫報社出版部, 1985 『高句麗古墳壁畫』 朝鮮畫報社.

71)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1989 『中國美術全集-繪畫編』12 墓室壁畫.

72) 사회과학원, 1981 『덕흥리고구려벽화무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日譯)高寬敏, 1986 『德興里高句麗壁畫古墳』 講談社(東京).

73) 김용남, 1979 「새로 알려진 덕흥리고구려벽화무덤에 대하여」 『역사과학』 1979-3.; 박진옥, 1980 「고구려 유주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0-4; 주영현, 1985 「주요 고구려 벽화무덤의 주인공문제에 대하여」 『고구려 벽화고분』; 손영중, 1987 「덕흥리벽화무덤의 주인공 국적문제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7-1; 김원룡, 1979 「고구려 벽화고분의 신자료」 『역사학보』81; 劉永智, 1983 「幽州刺史墓考略」 『歷史研究』1983-2; 康捷, 1986 「朝鮮德興理壁畫墓及其有關問題」 『박물관연구』1986-1; 佐伯有清, 1987 「德興理高句麗 壁畫古墳の墓誌」 『日本古代中世史論考』; 1995 『古代東アジア金石文論考』吉川弘

해 그 빈도수가 매우 적었다.⁷⁴⁾ 하지만 모두루의 族系와 祖·父의 事績에 대한 검토와 聖王·奴客·北扶餘 등의 의미가 논해졌던 만큼, 현재까지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처럼 3기의 고분(모두루총·안악3호분·덕흥리벽화고분) 발견과 당시 쏟아져 나왔던 무수한 관련 연구들과 추후 정리되어 발간된 도록류의 서적 등은 고구려 벽화고분의 목서연구에 가장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고, 이를 기초로 벽화와 목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1990년대에는 墓誌 이외의 목서들에 대한 고찰도 점차 늘어났다. 특히 덕흥리벽화고분의 목서를 활용한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덕흥리벽화고분에는 墓誌 이외에도 다량의 목서가 확인되는 만큼, 연구의 소재로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3군태수도와 방제분석을 통해 고구려의 幽州 진출과 지배 문제를 논의하거나,⁷⁵⁾ 낙랑·대방의 지역적 특성을 살피기 위해 막부관리도와 목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⁷⁶⁾ 또한 묘지의 ‘釋迦文佛弟子’와 칠보행사도를 통해 고구려의 불교에 접근하고자 한 연구를 비롯해,⁷⁷⁾ 고분의 천정에 남겨진 다양한 서술형 방제 역시 그 의미와 연원이 분석되었다.⁷⁸⁾

2000년을 전후로 고구려 벽화고분에 대한 종합적인 저서가 대거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목서분석에 집중하였던 공식구를 제외하면,⁷⁹⁾ 대부분 고분구조와 벽화내용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⁸⁰⁾ 이후에도 덕흥리벽화고분 내의 목서를 상세히 살펴보기 위한 기초 작업이 행해지거나,⁸¹⁾ 4세기 고구려의 지역경영과 중국계 망명인의 정체성 인식을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어졌다.⁸²⁾

文館 재수록; 1987 「高句麗廣開土王時代の墨書銘」『東アジアの古代文化』51; 1995 『古代東アジア金石文論考』吉川弘文館 재수록; 1987 「食大倉考-德興理高句麗 壁畫古墳の墓誌に關聯して」『日本常民文化紀要』13; 1995 『古代東アジア金石文論考』吉川弘文館 재수록; 武田幸男, 1989 「德興理壁畫古墳被葬者の出自と經歷」『朝鮮學報』30.

74) 佐伯有清, 1977 「高句麗牟頭婁塚墓誌の再檢討」『史朋』7, 北海道大學文學部; 武田幸男, 1981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朝鮮學報』99.100, 朝鮮學會.

75) 손영종, 1991 「덕흥리 벽화무덤의 피장자 망명인설에 대한 비판」『역사과학』1991-1.2; 1997 「고구려 벽화무덤의 목서명과 피장자」『고구려연구』4; 공식구, 1990 「덕흥리벽화고분의 그 주인공과 그 성격」『백제논총』21; 1996 「덕흥리벽화고분 피장자의 국적문제」『한국상고사학회』22;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1992 위의 책; 이인철, 1998 「덕흥리벽화고분의 목서명을 통해 본 고구려의 유주경영」『역사학보』158.

76) 임기환, 1995 「4세기 고구려의 낙랑·대방지역 경영-안악3호분·덕흥리고분의 목서명 검토를 중심으로-」『역사학보』147.

77) 深津行徳, 1997 「高句麗古墳壁畫を通してみた宗教と思想の研究」『高句麗研究』4; 이문기, 1999 「高句麗 德興里古墳壁畫의 ‘七寶行事圖’와 墨書銘」『역사교육논집』25; 門田誠一, 2006 「高句麗 壁畫古墳に描かれた佛教關聯の行事について」『朝鮮古代研究』1; 『古代東アジア地域相の考古學的研究』學生社, 재수록.

78) 南秀雄, 1993 「高句麗壁畫の地軸像」『高文化談叢』30; 1995 「高句麗古墳壁畫の圖像構成」『朝鮮文化研究』2.

79) 孔錫龜, 1989 「安岳 3號墳의 墨書銘에 대한 考察」『歷史學報』121 역사학회; 孔錫龜, 1990 「德興里壁畫古墳의 主人公과 그 性格」『백제연구』21, 충남대 백제연구소; 1996 「德興里 壁畫古墳 被葬者の 國籍問題」『韓國上古史學報』22, 한국상고사학회; 2000 「高句麗의 南進과 壁畫古墳」『한국고대사학회』20.

80) 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吉川弘文館; 전호태, 2000 『고구려고분벽화연구』사계절; 강현숙, 2000 『고구려고분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고구려고분연구』진인진; 손수호, 2001 『고구려고분연구』사회과학출판사.

81) 김근식, 2009 「德興里 古墳壁畫의 墨書와 圖像 研究」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2) 여호규, 2009 「4세기 高句麗의 樂浪·帶方 경영과 中國系 亡命人의 정체성 인식」『한국고대사연구』53.

한편 2010년 이후부터는 벽화의 傍題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들이 집적되어 저서로 출간되기 시작하였다.⁸³⁾ 또 고구려의 낙랑·대방고지 영역화 과정과 지배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수단으로 벽화고분의 목서가 활용되기도 하였으며,⁸⁴⁾ 5세기 초중반 벽화고분에 보이는 ‘王’자문에 주목하여 그 편년과 형성의 정치적 배경을 검토하기도 하였다.⁸⁵⁾ 아울러 덕흥리벽화고분의 ‘中裏都督’,⁸⁶⁾ ‘仙人’, 그리고 ‘玉女’⁸⁷⁾ 등 개별 목서의 의미 분석으로도 연구가 확장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고분의 목서를 활용하여 고구려 서사문화의 형성과 전개를 검토하거나,⁸⁸⁾ 중국 서체와 비교하는 연구도 이루어지는 등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다.⁸⁹⁾

지금까지 고구려 벽화고분의 목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3기의 고분(안악3호분·덕흥리벽화고분·모두루총) 墓誌 분석을 통한 피장자의 국적과 정치적 위상에만 연구가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분묘지를 제외한 다른 나머지 목서들에 대해서도 연구 편수들은 많아 상당히 연구가 진척된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목서에 대한 간단한 정보제공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墓誌가 있는 벽화고분에 비해 傍題만 있는 경우에는 연구나 자료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또 墓誌를 제외한 나머지 목서도 최근에 들어서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지만, 주목된 몇몇의 傍題조차도 고분과는 단절된 채 고구려 정치사를 설명하는 자료로만 활용되었다.

이는 그동안 고분의 목서가 고분과 관계없이 文字史料로만 소비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방법은 고분과 목서를 분리시켜 고분 내부에 쓰인 목서의 본래 기능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연구경향을 반성하고 고분과 목서의 관계 속에서 목서의 기능을 추적해보려고 한다. 왜 고분 속에 목서를 남겼는지, 이 목서를 읽는 대상자는 과연 누구였는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 고구려 墓葬文化의 일부를 복원해보려 한다. 또 벽화의 방제들도 ‘기타 벽화고분 목서’⁹⁰⁾로 한꺼번에 묶여 소개되어서는 안 된다. 목서를 해당 고분의 구조와 함께 바라본다면 고분과 목서의 계통성이나 지역성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고분 제작 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石工’이나 ‘畫工’ 등으로 불리는 장인들의 존재이다. 당시 고구려의 건축술은 적석총만 보더라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분을 축조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고구려에는 권력과 재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크고 웅장한 고분을 만들 수 있

83) 門田誠一, 2011 『高句麗 壁畫古墳と東アジア』 思文閣; 東潮, 2011 『高句麗壁畫と東アジア』 學生社.

84) 안정준, 2013 「고구려의 낙랑·대방고지 영역화 과정과 지배방식」 『한국고대사연구』69; 2016 『高句麗의 樂浪·帶方郡 故地 지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5) 김근식, 2015 「고구려 ‘王’자문 벽화고분의 편년과 형성배경」 『목간과 문자』14.

86) 이규호, 2015 「4~5세기 고구려 중리도독부의 성립과 기능」 『고구려발해연구』53.

87) 김근식, 2017 「덕흥리벽화고분의 선인·옥녀도 연구」 『동아시아고대학』45.

88) 고광익, 2017 「고구려 서사문화의 형성과 전개」 『동양예술』35, pp.43~47.

89) 정현숙, 2018 『삼국시대의 서예』 사계절, pp.54~75.

90)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권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p.103~108.

는 기술력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벽화가 접목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고분의 벽화는 장의미술이었던 만큼, 일반그림과는 그리는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게다가 애초부터 벽화고분이 주요제가 아니었던 고구려인들에게 벽화고분은 굉장히 생소한 장법이였음이 틀림없다. 또 4세기 중반 안악3호분(357)에서 처음 확인된 고구려 벽화고분의 목서도 도저히 고구려의 것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적 요소가 충만하다. 따라서 고구려 초기벽화고분의 제작을 맡았던 장인들은 적석총을 만든 장인들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기술자와 함께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 기술이 고구려로 전이되기까지는 다양한 경로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지역의 고분 형식이나 무덤 내 문자문화를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안악3호분이나 덕흥리벽화고분 등 고구려의 초기벽화고분이 탄생한 지역, 즉 낙랑·대방지역의 묘장문화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맨 먼저 2장에서 漢代畫像石을 비롯하여, 중국 각지에 퍼져있는 漢魏晉壁畫古墳에서의 문자사용 사례와 낙랑·대방지역의 묘장문화 등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한편 무덤의 축조의뢰자는 죽기 전 본인이거나, 그 후손 내지 가족 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⁹¹⁾ 그럼 무덤 내의 목서나 문자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일까? 무덤에 묻힌 죽은 묘주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묘주의 가족인가? 그도 아니면 가족을 비롯해 인근에서 장례에 참석했던 사람들인가? 碑石·石刻·銘文塼 등과 마찬가지로 벽화고분의 목서 역시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고구려 벽화고분에 남겨진 목서들의 의미는 훗날 누군가에 의해 파헤쳐질 것을 대비한 경고 문구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벽화고분은 무덤 안에 床石과 壁畫 등으로 喪葬儀禮를 표현하면서 출현한 문화이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경우 벽화에 목서된 傍題는 모든 벽화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일부는 마치 관람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왜냐하면 傍題는 ‘해당 벽화의 내용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 벽화고분의 목서는 무덤이 축조되고 벽화가 그려진 이후, 그 벽화를 보는 사람, 즉 ‘관람자’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결국 고구려 벽화고분은 그 목서로 인해 고분이 완성된 후 고분 내부로 들어와 벽화를 보았을 외부 ‘관람자’들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漢代 畫像石 문화에 나타나는 ‘觀者’의 존재가 주목된다. 山東 東阿 永興2年祠堂題記⁹²⁾나 山東 嘉祥 永興3年祠堂題記⁹³⁾ 등 漢代畫像石 祠堂의 명문에서 확인되듯이 화상석으로 만든 사당은 관람자를 전제하고 제작되었다. 화상석 사당은 무덤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화상석과 벽화는 다른 제재라고 보는 이도 있겠지만, 화상석에도 모두 채색을 했다는 점에서 벽화고분의 장례문화와 연관 지어 볼 여지가 충분

91) 홍승현·양진석·소현숙, 2019 『돌, 영원을 기록하다』 경북대학교출판부, p.258.

92) 觀者諸君, 愿勿攀傷, 壽得萬年, 家富昌.

93) 唯諸觀者, 深加哀憐, 壽如金石, 子孫萬年. 牧馬牛羊諸僮, 皆良家子, 來入堂宅, 但觀畫, 無得刻畫. 令人壽, 無爲賊禍, 亂及子孫, 明語賢仁四海土, 唯省此書無忽矣.

하다. 더욱이 중국 陝西省 旬邑縣 百子村 漢代壁畫古墳⁹⁴⁾의 목서에서 벽화를 ‘관람한 자(觀者)’의 존재가 보다 분명히 확인된다.⁹⁵⁾ 목서를 보면 “보고 싶은 자는 마땅히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어서, 이때의 ‘觀者’가 무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와 벽화를 보는 관람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⁹⁶⁾

이처럼 중국의 漢代壁畫古墳이 외부 관람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만들어진 묘장 문화라고 할 때, 고구려의 벽화고분은 과연 예외적 존재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무덤을 폐쇄적 관점에서 바라봐왔던 사고에서 탈피하여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고구려 벽화고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고구려 벽화고분의 목서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필자는 본고의 4장에서 고구려 덕흥리벽화고분의 목서를 새롭게 읽고 해석하여, 고구려 벽화고분에서도 ‘觀者’의 존재를 확인하고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3장의 안악3호분 목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중국 묘장의 문자문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고구려 벽화고분과의 연결 접점을 찾는 것에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로 전파-수용-정착-소멸되는 일련의 과정을 조명하였고, 나아가 주문자·제작자·관람자 각각의 관점에서 목서의 기능을 서술하였다. 주요 검토대상은 목서가 확인되고 있는 13기의 고구려 벽화고분⁹⁷⁾과 중국의 漢代畫像石·漢魏晉壁畫古墳·銘文磚·銘文瓦當 등이다.

제2장에서는 고구려 벽화고분의 목서는 積石塚을 고유묘제로 하는 高句麗로부터의 영향관계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구려 벽화고분의 목서 이해를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중국 墓葬文化和 文字를 탐구하려고 한다. 그 속에서 畫像石·壁畫古墳·銘文磚의 文字文化를 검토하고, 특히 주문자·제작자·觀者의 존재를 확인할 것이다. 墓誌와 傍題로 구성된 중국 墓葬의 문자문화는 묘지로 볼 때 이미 樂浪·帶方故地 전축분 문화에 수용·정착되고 있었으며, 또한 주문자·제작자 시스템 역시 이미 갖추어진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벽화고분들은 탄생된 중심부보다 주변부로 전파되면서, 주변부에서 오히려 더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고 더불어 많은 방제가 쓰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安岳3號墳의 축조와 성립에 영향을 준 墓葬文化의 계보를 검토하고자 한다. 동수의 흔적과 요양벽화고분의 구조적 특징분석을 통해, 안악3호분의 축조가 낙랑·대방고지의 기존 묘제와는 완전히 다른 획기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무덤의 구조면에서 안악3호분이 요양벽화고분의 영향을 받은 사실은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당시 낙랑·대방고지의 墓葬制는 塼築墳으로, 안악3호분을 축조할 만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안악3호분이 낙랑·대방고지에 축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축조 기술자가 동수와 함께 남하하였거나, 요양지역 축조기술자를 초빙하는 방법밖에 없다.

94) ‘諸觀者皆解履乃得入’(西壁). ‘諸欲觀者皆當解履乃得入觀此’(東壁)

95) 김병준, 2004 「漢代 聚落 分布의 변화」 『中國古中世史研究』15, p.60.

96) 鄭岩, 加藤直子 譯, 2008 「漢代喪葬畫像における觀者の問題」 『美術研究』395, pp.1~19.

97) 목서가 확인되는 고구려 벽화고분은 모두 18기이나, 王字문벽화고분으로 분류되는 감신총·옥도리벽화고분·산성하332호분·장천2호분·미창구장군묘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즉, 안악3호분은 당시 낙랑·대방고지에 새롭게 등장한 묘장문화였다는 것이다. 당시 안악3호분은 하나의 획기를 이루며 낙랑·대방고지에 안착하였고, 이후 고구려벽화고분의 새로운 싹이 되었다.

제4장에서는 평양지역 벽화고분의 淵源과 묵서문화의 變容過程을 논해보고자 한다. 이에 德興里壁畫古墳의 墓誌와 傍題를 명확히 정리·소개하여 그 판독과 해석을 확정하였다. 이에 더해 구조적인 면에서 遼陽壁畫古墳·안악3호분과는 전혀 다른 계통의 벽화고분임을 강조하였다. 이후 연도에 쓰인 ‘觀者’라는 묵서를 통해 고구려벽화고분에서 관람자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된 주문자·제작자·관람대상자 등의 諸문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평양지역 벽화고분의 천상세계와 묵서서술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천정구조의 여러 단계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후 덕흥리벽화고분의 연원을 살펴 가면서, 그것이 초래한 문화적 변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평양천도를 계기로 하여 평양과 집안지역의 묘장문화에 나타나는 상호간의 영향관계와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집안 지역의 고구려 중심문화는 애초 무덤 내부에 묵서를 쓰지 않고, 무덤 밖에 묘비를 세우는 문화였지만, 평양천도를 전후해 평양지역의 묘장과 묵서문화가 집안지역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 단적인 사례가 바로 모두루총이다. 그런데 모두루총 내부에 묘지가 묵서되었지만, 내용을 보면 집안 지역의 묘비 서사문화가 보다 강하게 작용하였다. 한편 평양지역에도 평양천도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고구려의 중심문화가 전파되었고, 이는 평양지역의 묘장과 묵서문화에도 상당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었다. 궁극적으로는 평양지역의 묘장문화, 특히 고분내 묵서문화의 소멸을 가져온 커다란 변화가 포착된다.

그간 고구려 벽화고분의 묵서는 고구려 묘장문화에 대한 탐구와 복원의 소재가 아니라, 고구려 정치사 연구를 위한 문자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로 인해 벽화 고분내 묵서의 기능이나 그 대상자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의 모색과 자료의 확대를 고민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글이 고구려 벽화고분 연구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구려 도성 연구

권순홍(충북대)

고구려 도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도성이야말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으로서 고구려를 이해할 수 있는 관건일 수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고구려 도성 연구는 지리적 위치 문제라는 한 가지 주제에만 집착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제 고구려 도성 연구는 주어진 무대로서의 위치를 넘어 사회적 산물로서 공간의 문제로 주제를 넓힐 필요가 있다.

고구려 도성에 관한 연구는 일찍이 지리적 위치에 집중하였다. 고구려 멸망 후 그 위치가 잊혀진 것이 배경이었지만, 고구려를 미발달된 사회로 해석하면서 중국에 종속적인 역사로 파악하려는 식민주의 역사학이 도성 연구를 선점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한국학계는 일본 연구자들과는 다른 위치 비정을 시도하고, 새로운 천도 시점을 제안함으로써 그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다만, 이 와중에 도성은 물리적 '장소'일 뿐, 사회적 산물로서 '공간'으로 인식될 여지가 없었다. 최근에는 비로소 도성의 공간적 배치 및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도성 공간에 내재하는 권력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공간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전개와 더불어 끊임없이 재생산된 사회적 산물이라는 문제의식의 공유였다. 주제의 확장이자 연구의 심화였다.

단, 한편으로 그 공간이 담고 있는 인간의 삶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산물로서의 공간은 지배층의 권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피지배층의 삶을 통해서도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권력의 공간을 넘어, 삶의 공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삶이 생산과 소비 혹은 신분 같은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유지된다면, 삶의 공간이란 인간과 인간, 공간과 공간의 다양한 관계에 의해 생산된 공간이다. 이로써 공간의 생산, 그리고 생산된 공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양자의 상호작용까지도 고민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1장에서는 먼저 고구려 도성의 지리적 위치를 비정하였다. 사회적 공간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리적 위치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졸본을 환인의 고려묘자촌으로 비정하였고, 국내 위나암성을 오녀산성, 이때의 국내를 오늘날의 환인현 중심지 일대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사료에 보이지 않는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도성 교체는 改都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삼국지』에 따르면, 고구려 왕실은 연노부에서 계루부로 교체되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태조왕대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 왕실교체를 중심지의 교체를 수반한 改都로 파악하였다. 결과적으로 고구려의 도성이 환인에서 집안으로 바뀐 것은 천도가 아니라, 왕실교체에 따른 개도였다.

한편, 427년 평양 천도이전에 등장하는 평양에 대해서는 313년의 낙랑 축출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평양은 집안 지역으로, 그 이후의 평양은 현재의 평양 지역으로 비정하였다. 단, 고국원왕 13년(343년)에 등장하는 평양동황성의 위치는 알기 어려웠다.

427년에 천도한 전기 평양성의 위치에 관해서는 기왕에 안학궁설, 청암리토성설, 대성구역 거점설이 제기되었는데, 안학궁설과 청암리토성설은 각각의 한계가 분명하였다. 특히, 고구려 도성의 구조를 산성+평지성으로 파악하려는 강박의 소산이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전기 평양성에는 평지 성곽이 없었을 가능성과 함께 대성구역 거점설에 무게를 실었다.

제2장에서는 고구려 도성의 경관을 분석하였다. 경관은 공간의 시각적 이미지를 의미한다. 공간과 경관은 단지 인간에게 주어진 무대 혹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인간 활동에 의해 생산된 사회적 산물이라는 관점이 바탕이다. 이전에 없었던 경관이 고구려 도성에 하나둘씩 생겨나는 과정을 통해 고구려의 지배 권력이 변천하는 과정을 유추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장에서는 권력에 의한 산물에 집중하였다. 우선 권력의 추이에 따른 도성 경관의 형성과정을 검토하였다. 都‘城’이라는 단어에 매몰되면 성곽에 집착하기 쉽지만, 검토 결과 성곽은 都의 조건이 아니었다. 단, 종묘와 궁실만큼은 배타적인 왕권을 상징함으로써, 都가 都일 수 있는 필수조건이었다. 반면, 창고와 뇌옥은 都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충분조건으로서, 각각 국가재정과 사법권을 상징하는 공권력의 지표일 수 있었고, 태학과 불교사원은 한층 더 배타화된 권력의 지배윤리와 통치이념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다음으로, 지배 권력이 의도적으로 구현한 도성 경관을 통해 얻으려 했던 효과를 검토하였다. 고구려 도성에서 평지 성곽은 군사.방어적 기능 보다는 공간을 신분화하는 기능이 컸고, 평지 성곽의 조영은 고구려 중앙귀족의 형성과 표리관계였다. 이후 대왕의 전제화와 귀족의 관료화라는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도성 경관 역시 변모할 수밖에 없었고, 평지 성곽은 격자형 가로구획으로 대체되었다. 전기 평양성의 격자형 가로구획은 관료들에게 분급된 택지와 관련이 깊었으므로 관료제의 지표일 수 있었다. 이른바 ‘京’의 등장이었다. 이후 장안성의 조영 시에는 북위 낙양도성의 영향 아래에서 주민통제를 위한 관민의 구분과 방장제가 실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도성 경관의 형성과 변모 과정을 통해 지배 권력의 추이와 변천까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고구려 ‘도성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도성인의 삶을 상상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지배 권력이 생산한 공간을 검토하였다면, 본 장에서는 피지배층의 삶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가를 고민하였다. 도성 공간은 지배층의 권력뿐만 아니라 피지배층의 삶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제기된 ‘도성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참고하였다. 이 개념은 자급자족하지 않는 사회로서 도성이 주변 지역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존립하고 있는지를 고민한다. 이로써 도성 주민들의 생활과 공간의 관계를 주목하였다.

고구려에서도 4세기에 이르면 도성의 비자급자족성과 외부의존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도성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인 주변 지역 사회와의 관계망을 통해 ‘도성권’을 형성하였다. 이때, 도성 자체의 범위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권으로 파악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즉 ‘도성권’은 도성 생활권과 그 바깥에서 도성의 생산기능을 담당

하는 위성취락군으로 구성된다. 집안 지역에서는 집안 분지와 그 동쪽의 하해방을 포함하는 도성 생활권과 그 바깥의 위성취락군으로서 옛 고유명 5부의 범위가 ‘도성권’이었다. 평양 지역에서는 전기 평양성과 장안성을 중심으로 약 20~25km 떨어진 경신리 고분군과 진파리 고분군, 설매리 고분군 등의 위치까지가 도성 생활권이였다. 다만, 그 바깥 위성취락군의 분포는 자료의 한계로 알기 어려웠다.

이상을 통해서 고구려 도성의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도성 공간에서 전개된 지배 권력의 변천과 피지배 주민들의 삶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연구⁹⁸⁾

장병진(연세대학교)

- I. 서론
- II. 고조선의 멸망과 고구려의 성립
 - 1. 고조선 故地의 漢 군현화와 현도군 설치
 - 1) 고조선의 멸망과 4군 설치
 - 2) 현도군의 설치 배경과 관할 대상
 - 3) 현도군 운영의 특수성
 - 2. 기원전 4~2세기 요동 정세와 고구려의 성립
 - 1) 요동 정세의 변동과 고조선 주변부의 정치적 성장
 - 2) 고구려의 성립 배경
- III. 고구려의 주도세력 교체와 계루집단의 기원
 - 1. 고구려의 주도세력 교체와 현도군 관계
 - 1) 고구려국과 현도군 고구려현의 병존
 - 2) ‘소노-계루’집단의 주도권 교체와 漢의 책구루 설치
 - 2. ‘건국설화’의 시조 출자와 계루집단의 기원
 - 1) “夫餘別種”과 “出自夫餘”
 - 2) 계루집단의 기원
- IV. 영역의 확대와 중국 군현 세력과의 각축전
 - 1. 영동지역 복속 과정과 관할 방식
 - 1) 낙랑군 동부도위의 폐지와 고구려의 영동지역 진출
 - 2) 고구려 지배하의 동옥저와 불내예
 - 2. 낙랑·대방군의 흡수와 요동 진출의 모색
 - 1) 낙랑·대방군 지역의 흡수와 영역화
 - 2) 요동·현도군과의 각축과 요동 진출의 모색
- V. 고구려 전기의 지배구조와 정치 운영
 - 1. 고구려 전기의 영역지배
 - 1) 那의 결집과 5部の 편성
 - 2) 복속지 지배의 諸 양상
 - 2. 고구려 전기의 官制와 정치 운영
 - 1) 관등의 기원과 성격
 - 2) 국정 운영의 봉건제적 원리
-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다. 고구려가 성립하고 발전해 간 지역은 일찍이 고조선이 나라를 세웠으며,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는 漢 군현이 설치된 지역이기도 했다. 고구려 전기 역사는 고조선의 멸망과 漢

98) 장병진, 2019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의 군현 설치, 그리고 다시 중국 군현 세력을 축출하는 과정과 맞물려 전개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연속성에 주목해 선행 국가인 고조선과 고조선 故地에 들어선 漢 군현과의 관계를 통해 고구려 전기의 역사상을 복원해 보았다.

고조선 멸망 이후 설치된 漢 군현을 극복하는 과정이 고구려 역사의 발전과정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저항이라는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 군현과의 관계가 고구려 국가 발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규명하려고 했다. 고조선에서 삼국으로 이어지는 한국 고대사의 계기적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漢 군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漢 군현과의 관계를 통해 고구려사의 전개 과정을 살피고, 그 안에서 고구려 전기 지배체제의 특징을 함께 드러내고자 했다.

먼저 II장에서는 먼저 고조선이 존속하던 시기에 이미 고구려라는 토착의 정치세력이 성립되었음을 규명하고, 고조선 멸망 이후의 후속 조치였던 현도군의 설치 배경과 존재 양태를 살폈다. 특히 현도군의 특징을 관찰 대상이 된 토착 집단, 즉 고구려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했다. 이로써 고조선에서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시·공간 속에서 고구려라는 국가가 중첩해 등장하고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을 알 수 있었다.

고구려의 성립은 고조선이 존속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조선과 燕·秦·漢의 각축 속에 고구려 발흥지의 주민집단은 격변하는 정세에 대응하며 정치적 결집을 진전시키고, 독자적 문화전통을 수립했다. 기원전 3세기 말, 늦어도 2세기 초 무렵에는 주변의 예맥 사회와 구분되어 고구려로 불리는 정치체가 성립되었다. 고구려는 고조선(衛滿)이 주변의 예맥 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고조선에 예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거의 강압에 반발해 濊君 남려 등과 고조선의 세력권에서 이탈했고, 중국 군현과 직접 교섭하며 독립된 정치체로 존재했다.

고조선 멸망 후에 현도군이 추가로 설치되고, 그 속현으로 고구려현이 두어진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도군은 주변의 군현들과 다른 특징을 보였는데, 토착 대군장과 漢의 타협으로 군현이 설치되어 토착 사회의 정치구조가 온존했기 때문이다. 현도군이 설치된 후 고구려국과 현도군의 군현체제가 한동안 병존했으나, 곧 갈등이 노골화되었다. 군현의 통제 아래 고구려를 묶어두려는 漢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고, 현도군은 고구려로 대표되는 토착세력(夷貊)의 반발에 부딪혀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郡治를 옮기면서 그 郡勢가 크게 줄어들었다.

III장에서는 초기 고구려와 현도군의 관계를 구체화하고, 고구려국의 대외적 위상을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고구려와 현도군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이 고구려 내부의 정세 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었음에 주목해, '왕실 교체'의 실마리를 찾았다. 현도군(고구려현)이 처음 설치되었을 당시 고구려의 주도세력은 소노집단이었다. 그러나 계루집단이 현도군에 대한 저항을 주도하면서 토착 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구심점으로 대두했고, 고구려의 구성집단들이 소노집단의 정치적 구심력에서 이탈해 계루집단을 중심으로 재결집했다. 이른바 고구려의 왕실 교체는 소노집단의 영도력이 약화되고, 계루집단이 고구려 내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해 가는 과정이었다.

고구려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계루집단은 현도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宗主的 지위를 강화했다. 한편 계루집단은 고구려의 다른 구성집단들과 달리 부여계 집단에서 기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부여계 세력들의 元祖로 숭배되는 동명에 대한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구성집단과 자신들을 차별화하고 왕실의 신성성과 왕권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적어도 3세기 중반까지는 이러한 의식이 고구려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계루집단을 중심으로 재결집한 고구려는 점차 주변의 정치세력들을 복속하면서 영역을 확대했다. IV장에서는 고구려가 중국의 군현 세력을 축출하고, 고조선의 故地를 영역화하는 과정을 살폈다. 논의 과정에서 예맥의 거주지이면서, 과거 漢 군현의 통치를 경험한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통치 방식을 함께 살펴보았다. 고구려는 일찍이 자신들의 본거지에서 중국 군현 세력을 축출해 냈으나, 서북쪽의 현도군과 요동군, 남쪽과 동쪽으로는 낙랑군으로 둘러싸인 형국이었다. 고구려 전기의 영역확대는 예맥 사회의 통합과정이며 한편으로는 고조선 故地를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 군현 세력과의 각축전으로 전개되었다.

일찍이 옛 현도군의 교통로를 따라 영동지역으로 진출한 고구려는, 1세기 중반 동옥저 정복을 시작으로 後漢 말에는 영동 7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동안 고구려의 동옥저 지배방식을 공납을 매개로 한 간접지배로 파악하고, 고구려가 복속지를 지배하는 전형적 방식으로 이해해 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동옥저인들도 租庸調의 부담을 지는 고구려의 ‘民’이었다는 점에서 간접지배의 범주로 파악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고구려는 동옥저의 읍락에서 토착 거수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지배 질서를 용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수들을 아우르는 상위의 존재를 설정해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했다. 특히 漢 군현 지배의 遺制가 고구려의 통치 방식으로 襲用된 사실과 동옥저가 고구려에 복속되고 200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그것이 유지되었던 사실이 주목되었다. 이는 고구려 중·후기의 지배체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3세기 중반 동옥저와 불내예의 양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두 지역이 고구려에 복속된 시점은 100년여의 시차가 있었던 만큼, 고구려에 복속되기 이전의 상황도 달랐다. 後漢이 영동지역의 통치를 포기한 이후 불내예는 불내후가 현정 체계를 장악했고, 예하의 읍락들을 통치했다. 이후 고구려 역시 이러한 지배구조를 용인했다. 그것을 간접지배의 형태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동옥저와 비교해 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았음은 분명하다. 관구검의 침공 당시 동옥저와 불내예의 대응이 달랐던 것은 고구려의 지배방식, 그리고 고구려에 대한 예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된다.

비슷한 기간 동안 고구려는 남쪽으로 낙랑군의 중심부를 압박해 갔으며, 서북쪽으로는 현도군과 요동군, 북방의 유목 세력과 각축을 벌이면서 요동으로 진출을 모색했다. 3세기 말~4세기 초에 이르면, 고구려는 고조선 멸망 이후부터 한반도에 자리하고 있었던 중국 군현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고 2군 지역(낙랑, 대방)을 영역화했다. 한편

서북쪽으로는 혼하 상류 일대로 진출해 요하 유역 및 요동반도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고조선 주변부의 작은 나라로 출발한 고구려는 이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고구려가 광역을 아우르는 국가로 발전해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배체제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V장에서는 앞 장의 논의들을 수렴하면서 고구려 전기의 지배구조와 정치 운영의 특징을 밝혀보았다. 고구려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那와 部の 성격을 알아보고, 다양한 배경을 갖는 세력집단을 고구려의 지배 아래로 통합해 가는 과정을 살폈다. 아울러 관등을 통해 서열화된 諸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구려 국정 운영의 특징을 규명했다.

고구려는 소노, 혹은 계루집단이 모태가 되어 주변의 ‘那’ 혹은 ‘國’을 정복, 복속시키는 과정을 통해 성립된 것이라기보다는 비슷한 규모와 성격의 4~5개 집단(那)이 결합해 성립되었다. 고구려를 구성한 각 那는 소국과 같은 성격의 집단으로서 소노집단과 ‘宗主國과 附庸國’과 같은 형태로 결합해 자치적 기반을 유지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고구려라는 단위로 정치력이 발휘되었다.

고구려는 발흥지 일대의 주민집단들을 통합해 계루집단과 4那를 중핵으로 5部(那部)로 편성했다. 那部는 왕권에 의해 편성된 일종의 통치 단위로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한 지역적 구획이었다. 관등의 수여나 군대의 동원이 那部를 단위로 이루어진 것에서 보듯이 那部の 편성은 실질적 기능을 발휘했다. 那部로 편성된 후에도 그 내부의 세력집단들은(那, 國, 谷 등) 여전히 독자적 기반을 유지했고, 那部 내에서의 통치력은 이들이 보유한 독자적 기구를 통해 발휘되었다. 다만 那部 내에서 구성집단 간의 상대적 위계는 있었지만, 상호 간의 통속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했고 병립된 상태로 존재했다.

한편 고구려는 초기 5族, 5部の 구성을 넘어 사방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고구려 전기에 새롭게 확보한 지역들은 복속 과정과 생활 양식 등 제반 양상에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졌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고구려의 지배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었는데, 城邑, 郡縣, 附庸(屬國) 등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고구려가 복속지에 지배력을 관철하는 방식은 기존의 사회구성과 지배 질서를 용인하면서 상급의 존재(기구)를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배방식이 일원화된 체계로 정비된 지방통치조직의 형태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체제의 未備나 과도적 양상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복속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취와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한편으로 유목 부락을 부용시켜 지배한 방식이 고구려 말기까지 유지되기도 했다. 또한, 동옥저 읍락의 자치성이 200여 년간 유지되고 있었던 사례를 과도적 양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을 고구려만의 유일한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원적 구성을 포괄하면서 국가체제를 정비해 나아간 고구려사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구려를 구성한 다양한 세력집단을 하나의 정치질서 아래로 통합하는 것은 관등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관등의 수여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고

고구려를 구성한 지배세력들의 정치적 지위를 공인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관등제라는 같은 기준을 통해 고구려를 구성한 다양한 세력들을 국왕 아래 일원적으로 서열화하는 기능도 있었다. 관등제가 성립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계루부 내 구성원의 편제, 두 번째는 계루부와 함께 고구려를 구성한 那部の 구성원에 대한 편제, 세 번째는 고구려에 복속된 세력집단에 대한 편제 과정이다. 또 각각의 과정에서 다시 수장적 성격의 존재와 그들의 속료(가신)적 존재들에 대한 편제로 구분된다.

고구려 전기의 관등제는 계루부의 長이 고구려의 왕으로 거듭나면서 계루부를 구성한 중소세력의 위호와 속료집단, 그리고 고구려 국가 차원의 실무직에서 비롯된 관명을 기본으로 성립되었다. 그리고 那部の 최고위 수장층을 별도의 위호를 주어 편입시켰다. 계루집단이 부여계 집단에서 기원한 사실과 관련해 ‘對廬’, ‘優台(于台)’와 같이 부여계 위호가 관등으로 정착한 측면이 두드러진다. 또 기본적으로 국왕 역시 그 기원에 있어서 諸加와 동일한 성격을 가졌던 만큼 가신(속료집단)의 직명이 국가 차원의 관등으로 활용되었으며, 외교나 군사와 같은 고구려국 차원의 실무직에서 비롯된 관명도 관등의 기원을 이루었다. 고구려국 차원의 실무는 주된 대상이 漢 군현이었던 사실과 관련해 군현 조직의 직명을 수용했다.

고구려 국정 운영은 관등제를 통해 서열화된 諸加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운영의 원리가 先秦 시기의 爵制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 준다. 고구려의 관등제, 정치 운영상에 보이는 봉건제적 특징은 고조선, 부여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戰國 시기 이후 秦·漢 帝國이 성립하면서 관료제가 정비되어 간 것과 별개로 예맥 사회에서는 고조선 이래 독자적 정치 질서를 마련했고, 고구려 역시 그러한 토대 위에서 정치체제를 정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 漢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일부 제도의 수용을 이루었고, 주변의 여러 정치세력을 아우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 원리를 포용하면서 고구려 나름의 지배체제를 이룬 것이었다.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목하고자 했던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정비과정의 두 가지 키워드는 ‘연속성’과 ‘다원성’이었다. 고조선과 그 故地에 설치된 漢 군현과의 관계를 통해 고구려사의 전개를 살피는 것으로 역사적 연속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또 고구려 국가체제의 정비과정을 일원화라는 단선적 흐름으로만 보지 않고, 고구려 전기의 역사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했다. 고구려 특유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는 전기 지배체제의 중층적이고 다원적인 성격을 드러내려는 것이었다.

다만 고구려 전기의 역사상을 온전하게 드러내기에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초기 王系를 둘러싼 논란이나 고구려 王都의 실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고, 대민지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양상을 드러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아울러 문헌 중심의 논의에 더해 고고 자료를 접목한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 논의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문들과 더불어 미진한 논의들을 보완해 가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부족한 논의이지만, 이 글이 고구려사, 나아가 한국 고대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